碩 士 學 位 論 文

東學의 敎育思想과 現代的 意義

指導敎授　韓 錫 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社會敎育專攻

孔　　龍

2004년　8월

東學의 敎育思想과 現代的 意義

指導敎授　韓 錫 祉

이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6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社會敎育專攻

提出者　孔　　龍

孔　　龍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4년　7월

審査委員長

審 査 委 員

審 査 委 員

<국문초록>

동학의 교육사상과 현대적 의의

공 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한 석 지

동학은 조선사회가 정치, 도덕, 교육의 부패로 절망한 민중에게 안락과 질서의 새시대적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민족적 주체사상의 배양을 역설하면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오늘을 사는 한국인에게 교훈적이다. 또한 주체교육과 애국교육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 아쉬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 시사점 또한 적지 않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동학을 보다 구체적인 교육사상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강화시키고

둘째, 교육정신의 본질을 재조명함으로써 한국교육사상의 우수성을 확인시키며

셋째, 애국 애족하는 시민정신과 인간교육정신이 시급히 요청되는 한국교육의 현실에 주체적이고 인도적인 사상이 현대적인 교육사상으로 승화되어 현대 교육적 의의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동학의 시천주의 기본사상을 통하여 동학의 교육사상을 고찰하려는 것이기에 연구의 성격상 주로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동학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및 천도교에서 발간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논문이나 단행본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민족주체성을 강조한 동학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은 동학이 교육학적 입장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의 방법과 그 범위를 밝혔다.

제Ⅱ장에서는 모든 사상의 창도에는 발생배경과 원인이 있듯이 동학을 창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동학의 인간관인 시천주를 중심으로 살폈다.

제Ⅲ장은 동학의 교육관에서 도출되어진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동학사상에 내포 되어있는 교육사상으로 인본주의 교육사상, 평등주의 교육사상, 여성존중 교육사상, 아동존중 교육사상, 도덕주의 교육사상,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고찰하였다.

---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제Ⅳ은 동학의 교육방법으로 동학의 교육사상을 통해 동학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부분으로 전체적인 요약을 통하여 동학의 교육사상을 고찰한 결과와 교육사상적 의의 및 현대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찰한 결과 동학의 기본사상은 인간의 존엄성, 민족주체성이라고 압축하여 볼 수 있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려면 개인, 국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국가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동학사상은 인간을 궁극적 목적으로 보며, 상실된 자아를 자각하는 인간적 주체성 확립과 보국안민의 민족적 주체성을 겸비한 인간육성이라는 그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교육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동학사상의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동학의 교육사상과 현대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본주의 교육사상이다.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사상은 우리나라 본래의 전통적인 단군사상인 홍익인간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사상으로서 서양의 민주주의 이념과도 부합된다.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은 인간에게 교육의 제 일차적인 목적은 인격교육, 인간성 회복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민중들에게 그 모순을 헤쳐 나오게 해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초월하여 소외현상에 대항하는 비판적 민중으로 교화시켰던 것이다. 이 같은 인본주의 교육사상은 한국인의 인간주의적 성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인간중심 사상이 그 근간이 되었다. 이 인본주의 교육사상을 현대 교육적 의의를 교육현장에 적용시킨다면 학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인격적인 존중, 사랑이 밑바탕이 된다면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학생과 교사 간에 마음에 벽을 무너뜨릴 것이며 인격대 인격의 자연스런 만남으로 사제간의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다.

둘째, 평등주의 교육사상이다. 모든 인간은 한울님을 모신 시천주의 주인으로서 빈부귀천, 신분의 고하, 남녀의 차별 없이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사상으로 불평등한 정치·사회 속에서 인간의 평등을 주창함으로서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교육하도록 한 사상이다. 평등주의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로 모든 인간 천지만물을 소중하게 여겨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점은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셋째, 여성존중 교육사상이다. 여자들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여 삼종지도와 칠거지악의 굴레에서 천대받았던 여성을 해방하여 남자와 똑같이 인내천의 관점에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개하도록 한 교육사상이다. 동학은 '시천주 사상'을 통하여 여성존중의 몸소 실천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자들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여 근대적인 여성의식을 깨닫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전통이 되어 여성존중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부속품이나 천대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의 인격체로 우대했다는 점에서 여성존중의 교육사상으로 현대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넷째, 아동존중 교육사상이다. 수운은 인내천 사상에 입각하여 아동은 다 같은 인간이며, 한울님과 같은 존재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노리개나 하대 받아도 당연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아동을 치는 것은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라 하여 어른으로부터 유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

해 아동을 한울님 모시듯이 시천주 함으로서 존중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아동존중사상의 현대 교육적 의의는 어른들이 아동을 소중한 인격체로 여길 수 있는 계기를 동학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라 하였다. 이 사상은 요즘 교육현장에서 체벌금지와 연계시켜 도입하면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강한 신뢰감이 형성될 것이다.

다섯째, 도덕주의 교육사상이다. 동학에서 인간은 인내천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서 이를 이루는 것이 수심정기에 의한 성·경·신, 즉 도덕성을 함양할 때 가능하다. 동학의 도덕주의 교육사상으로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면 도덕주의적 삶을 추구하여 수심정기로 마음을 바로 지키며, 성·경·신을 길러 평시 자신의 내면을 잘 절제하면 금욕적인 삶이 가능할 것이므로 성·경·신을 학교교육현장에서 잘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족주의 교육사상이다. 내정의 부패와 외세의 침투로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입신출세보다는 보국안민에 힘쓸 것을 강조한 동학사상은 민족부흥사상인 것이다. 이러한 동학의 대응은 매우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대응이었으며 도성덕립, 보국안민, 포덕천하하여 지상천국을 건설을 목표로 우리 민족에게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희망과 이상을 고취한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은 주체성 확립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념으로서 현대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학의 교육사상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동학의 교육은 삶의 주체인 민중의 입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계획되고 전개되는 교육이다. 현대 학교교육이 주체가 불분명하고 제도화, 형식화의 경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 인간화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학의 교육사상은 모든 인간이 지닌 가능성, 주체성, 존엄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자각과 각성, 민족적인 자각을 이루고 나아가 이상사회를 실현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동학은 한국의 현대교육이 참다운 교육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때에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序 論 1

Ⅱ. 東學思想의 發生背景과 人間觀 6

1. 東學思想의 發生背景 6
2. 東學의 人間觀 11

Ⅲ. 東學의 敎育思想 15

1. 人本主義 敎育思想 17
2. 平等主義 敎育思想 24
3. 女性尊重 敎育思想 30
4. 兒童尊重 敎育思想 37
5. 道德主義 敎育思想 42
6. 民族主義 敎育思想 50

Ⅳ. 東學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56

Ⅴ. 要約 및 結論 86

참고문헌 92
영문초록 9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序論

오늘날 한국사상의 세계화 또는 한국사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연구가 사상계와 학계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는 현상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세기 말 이래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한국 신흥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韓國 新興思想을 대표해 온 東學이 교육사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났다. 한국 현대사의 民主主義의 시발점 초석을 만든 것이 東學[1]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東學思想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東學-天道敎[2]은 崔濟愚에 의해서 창도된 근대적 자각사상으로서, 한국사에서 民衆의 自覺化, 人間化를 위한 개화운동인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교육운동으로서의 성격도 지녔다. 東學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人乃天思想, 開闢思想, 輔國安民思想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게 하는 모체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東學農民革命이 반제, 반봉건이라는 근대지향적인 민중운동으로 표출됨으로서 東學思想은 한국의 민족생활에 뿌리를 가진 고유한 민족사상임과 동시에 근대화를 촉진 시킨 현대사상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성향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東學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3] 東學을 본질적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이현희(1994), 「동학혁명사론」, 대광서림, p.167.
東學은 서학-천주학·천주교에 극복되는 개념에서 교리의 명칭을 붙었으나 다르게도 해석된다. 즉 東學에서 동은 동국, 동해, 동방, 해동 등의 한국의 함축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동 즉 서에 대립되면서도 일동이라는 광명과 시초와 긍정성의 강한 뜻을 나타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東學이 표출하는 이미지는 서양에 대한 동방 즉 한국이라는 포괄적인 넓은 의미를 시사하면서도 광명=희망, 시초=의욕, 긍정성=자존성 등의 공식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강재언(1983),「근대한국사상사연구」, 한울, p.133. 손병희는 1905. 11.17 東學의 일부인 일진회가 일본의 보호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자 같은 해 12월 1일 東學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天道敎를 선포했다 위에서는 동학과 천도교를 동일개념으로 사용했다.

3) 김용덕(1964) 「동학사상연구」, 중앙대 연구집, 허정(1987)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2에서 재인용. 東學思想硏究는 천도교측의 교리해설연구와 일본 관헌측의 치안대책상 조사연구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한 사상사연구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이중에서 역

살펴볼 때 교화적인 교육사상이 東學思想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즉 東學思想은 본질적으로 道德主義에 의한 교화의 원리이고 이러한 교육사상의 결실로서 일제하 東學의 구체적인 교육활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육사상사에 있어서 東學思想은 근대 지향적인 교육사상이였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오늘의 우리교육에 부딪친 이 시대가 안긴 교육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高度産業化라는 즉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들 수 있다. 생산력의 그 같은 변화는 사회제도나 인간의 의식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D.리즈먼은 生産力이 도구에서 기계로 기계에서 장치로 진척되면 그 범위에 생활하는 인간도 傳統志向型, 內部志向型, 他人志向型으로 바뀐다고 했다. 인간의 의식이 획일적 단순반응이라는 논의가 생긴다. 인간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교육사상 속에 확립되어온 이념이 생산의 비약적 증대라는 현대의 상황 속에서 새삼 재해석을 촉구당하고 있다.

둘째, 情報化 社會라는 고도 공업화 사회, 도시화, 거대 기구화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주요한 특징이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민은 부단히 갱신되는 지식·기술을 평생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기구가 거대 조직화에 따라 그 속에 살아갈 국민 개개인의 人間的 自主性의 確立이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의 도시화는 생활에 관한 연대의식의 쇠퇴, 개인의 책임의식 결여, 상실을 야기 시키며, 가정생활이나 혈연적 인간관계에 대해 핵가족화 등의 사회현상은 전통적으로 가정이 담당해 왔던 교육적 기능의 약화경향을 부르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中等敎育의 義務化 문제가 가시권에 접어들었으며 고등교육 취학자수의 증대가 현저하다. 진학자 수 증대는 교육시설의 부족, 교육비의 팽창과 교육조건의 저하, 사회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파생시켜 高等敎育量의 증가가 질의 저하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國家에서 요구하는 民主主義의 지표로서의 취학률 제고와 교육에의 민중참가, 국민의 교육권과 그 확충의 가능성에 초점을 모으게 된다.

넷째, 냉전대결 구도가 눈사태처럼 와해되는 시기지만 평화란 상식적으로 집단과 집단간, 국가와 국가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人間을 平和實現으로

사가들에 의한 연구는 3계열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동학사상을 단지 교도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이고, 둘째는 동학교리에 있어서 인내천사상이 갖는 민주성·근대성의 강조와 민주주의로 보는 견해, 셋째는 동학의 사상과 실천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는 견해이다.

나아가게 하는 敎育思想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대립이나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 간, 민족간, 나아가 세계 인간의 심정에 平和志向의 세계질서 형성에의 인식과 지향은 탈냉전시대를 벗어나는 오늘에 와서 더욱 관심 내지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4] 이와 같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사상이 바로 東學의 敎育思想인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物質萬能主義가 팽배하여 人間性의 喪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로 서구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윤리의식과 서구적인 윤리의식이 서로 혼동되어 있는 윤리의식의 부재 속에 살고 있다. 이에 東學敎育의 정신을 재조명함으로써 그것의 참된 정신을 밝히고 나아가 東學의 敎育思想이 현재의 교육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敎育의 최고 이념은 모든 사람의 人格의 尊嚴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일이다. 學校敎育의 철학적 근거 역시 人間尊重의 思想을 실현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5] 이런 측면에서 東學思想의 본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의 본체를 至氣로 인식하여 天과 人間, 모든 만물이 계속하여 생성하고 진화하여 완성-조화의 길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至氣觀은 유학의 이기이원론을 극복하는 개념이며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을 創造와 造化의 근원으로 해석하였다는 점과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敎育史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東學을 敎育思想的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또 다른 현실적 요구는 제도화, 형식화를 더해 가고 있는 현대교육에 대해 東學思想이 주는 의의가 크다는 점이다. 현대교육은 대부분 제도화된 學校敎育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우리의 토양과 현실에 맞는 교육이념과 실천 속에서 키워진 것이 아니라 美國의 機能主義 영향아래 성장하였다. 즉 미국의 교육제도가 그들의 풍토에 적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균형적,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점을 도외시하고 우리는 다만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능적, 기술적 인력 양산만을 목적으로 그 제도를 단순히 이식 성장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교육은 국가주도의 교육문제, 교육이념과 실천과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敎育課程, 敎育方法, 敎育行政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학교교육이 '責任 있는 社會人'을 육성한다면서 입시를 위한 知識, 機能 위주의 교육에 편중되면서 보편적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人性敎育은 엄두도 못 내어, 가정교육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東學의 敎育思

4) 이원호(1992), "한국교육사상의 좌표와 전망", 「교육사상연구 제1집」, pp.21-22.

5) 이강일(1992),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42.

想은 오늘날의 形式化된 교육에 대하여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닌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를 함께 개발하는 교육으로서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현대의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앞서 구축된 東學에 관계된 先學의 선구적 업적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교육사상의 차원에서 수용·해석하고, 이를 現代的 意義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6] 한국의 근대적 교육사상은 東學思想과의 일정한 관련되어 형성되어 왔다고 할 때 이러한 맥락에서 東學의 敎育思想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東學思想의 본질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東學思想에 관한 학문적 경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東學思想의 본질을 사회교육운동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부각시킴은 물론 主體的 敎育思想으로 수용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東學思想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東學이 생성된 19세기 중엽의 발생배경을 살펴보았으며, 侍天主, 人乃天의 기본사상으로 한 東學思想은 조선시대 말기인 東學의 창도(1860)에서 일제시대의 天道敎(1922)까지 水雲 崔濟愚, 海月 崔時亨, 義菴 孫秉熙에 이르는 敎祖 三代 교조의 敎育思想 면에서 미친 意義를 재조명해보고 현대사에 미친 영향 더 나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 면에서 비교 연구하게 되었다. 東學의 발생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다. 東學은 국내적으로 볼 때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人乃天 思想을 기본으로 하여 하층민, 민중을 중심으로 일어난 民主主義 사상으로 친분차별 철폐와 남녀평등, 인간성 회복, 수심정기에 의한 도덕적인 삶으로 성·경·신 등을 주장하였다. 인본주의, 평등주의, 여성존중, 아동존중, 도덕주의 교육사상이 동학사상에 엿보임으로 이를 학교 교육 현장에 잘 적응시킨다면, 학생의 교육이 지식, 주입식, 암기식교육에서 벗어나 人性敎育의 바탕이 되어 참된 인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東學의 敎育思想이 현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 현대 교육적 의의로서 재조명 하였다. 즉, 東學의 기본사상 중, 侍天主, 人乃天 思想을 기초로 하여 人本主義 敎育思想, 平等主義 敎育思想, 女性尊重 敎育思想, 兒童尊重 敎育思想으로 나누어 人間中心主義 敎育思想을 고찰하였으며, 현대 사회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건전한 民主市民을 養成'하고자 하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부합시켜 참된 이상

6) 김영미(1996), "동학의 교육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p.3-4.

형의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하여 道德主義 敎育思想과 연결시켜 보았다. 국외적으로 볼 때, 東學의 輔國安民은 외세에 대항한 호국충정의 발로로서 일어난 사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의존적·종속적인 삶이 아닌 자주·독립적인 정신을 키워 주었으며, 나라사랑하는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따라서 東學의 輔國安民을 기초로 한 民族主義 敎育思想을 학교 교육현장에 재조명하여 애국정신, 자주성, 독립적인 統一精神, 호국정신을 길러주며, 외래문물을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주체성 확립과, 세계 속에 한민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자 民族主義 敎育思想을 現代的 意義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東學이 갖는 일반적 배경을 고찰하고 東學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측면으로서 東學思想을 모색해 보기 위해 천도교 경전과 東學 자료집·간행물 또는 선행 연구물들을 이용하였다. 東學의 경전에는 교육에 대해 특별히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사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상체계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과 자료집을 근거로 교육사상을 밝혔다. 또, 東學 경전에 대한 견해를 신학적 측면이나 종교적 측면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교육사상적 측면에서 분석·논의하였기 때문에 본래 東學經典이 갖는 의미를 해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東學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정리·해석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 東學의 창도시대부터 천도교 시대까지의 제반사항의 발생, 변천과정을 통하여 본 東學 思想이 현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주로 이용한 자료는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단행본을 위주로 하였다. 人間의 尊嚴性과 平等性, 民族主體性을 강조한 東學의 敎育思想的 측면을 고찰하기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은 東學이 現代敎育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의 방법과 그 범위를 밝혔다.

제Ⅱ장에서는 모든 사상의 창도에는 발생배경과 원인이 있듯이 東學을 창도하게 된 발생배경과 동학의 인간관인 侍天主를 중심으로 살폈다.

제Ⅲ장은 東學의 교육사상에서 도출되어진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東學思想에 내포 되어있는 교육사상으로 인본주의 교육사상, 평등주의 교육사상, 여성존중 교육사상, 아동존중 교육사상, 도덕주의 교육사상,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고찰하였다.

제Ⅳ장은 東學의 敎育思想을 통해 東學의 현대교육에 주는 意義를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전체적인 요약을 통하여 東學의 敎育思想과 現代敎育

에 意義로 결론지었다.

Ⅱ) 東學思想의 發生 背景과 人間觀

18세기 소강상태를 맞이했던 조선사회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국가기강이 흐트러지고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맞아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민중들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혼란 신분제 붕괴와 대외적인 외세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방황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 현상이 초래된 시기였다 그 때 희망의 메시지로 東學은 민중들에게 큰 정신적인 위로감과 구원의 탈출구를 제공했던 것이다. 東學이 生成된 19세기 중엽의 정세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東學思想의 發生背景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9세기 중엽 조선사회에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내적인 모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전해 오는 또 다른 사회적 불안이 위기의식을 가져다주었다. 즉, 서세동점의 위협이 19세기에 그 절정에 달했다. 19세기에 서구 열강은 中國과 日本을 무력으로 개항하게 하였다. 1840년 청을 상대로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英國은 그에 승리한 대가로 1842년 南京條約을 체결하여 홍콩을 할양받고 강제로 모든 항구를 개항하게 하더니 마침내 1860년 영·불 연합군이 북경마저 침공했다. 日本도 1854년 미국의 함포 위협에 굴복하여 개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7] 이러한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朝野는 크게 불안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이 직접 조선에 나타나는 일도 빈번해졌다. 1832년 영국 상선이 충청도 해안에 나타나서 무역을 요청하였고, 1845년에는 다도해 수역을 측량하는 동시에 통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 그 이듬해인 1846년에는 프랑스 군함이 충청도 해안에 출현한 일도 있었다.[8] 1860년경에는 국내외에 걸친 강한 외세의 도전 속에서

7) 한우근(1983),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p.52.

8) 이기백(1979), 「한국사신론」, 일조각 , p.314.

민족적 위기가 고조되기 시기였다. 국내의 봉건적인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구미 등 외세 침략에 대한 불안이 계속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민심을 크게 동요시키고 조정을 불안하게 하였다. 더구나 西學(天主敎)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민중 사이에 급속히 전파되는 상황 속에서 양이침범의 사실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가 보위의식도 높아갔다. 거의 매년 이양선이 출몰하여 통상교섭을 강요받아 구미의 압도적인 세력에 대항하고자 조선은 輔國安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水雲[9]은 서양 세력이 동양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을 東經大全[10]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 저 경신년(1860년)사월에 온 세상이 어수선하고 민심이 야박하여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에다가 또 야릇한 풍설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어, 서양 사람들이 도덕을 닦아서 체득함으로써 그 조화를 부림에 있어 못하는 일이 없고 그 처부수는 무기에는 당해내는 사람이 없어.…… [11]

> 경신년에 전해 온 세상의 애기는 요망한 서양의 적이 중국을 침입해왔다.[12]

서양이 중국을 괴멸시키고 이어 조선까지에 위협을 가한 구미의 침략적 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말 세계사는 서구 팽창주의가 한손에는 성경을 한손에는 칼을 들고 동방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서구화를 강요하고 있었다. 阿片戰爭을 통해서 '종이호랑이'로 낙인찍힌 中國은 국내적으로 太平天國의 亂으로 시달리고 있었으며 天主敎의 전래로 중화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양세력의 서세동점적인 위협은 결국 1860년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로 구성된 연

제주대학교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9) 최제우(崔濟愚. 1824-1864) 東學의 창시자. 자는 性默, 호는 水雲 초명은 福述, 濟宣 본관은 경주 1824년 10월 28일 경주 정리에서 태어나 진리를 터득하려고 전국의 산과 절을 다니며 수도생활을 한 끝에 32세인 1855년 울산 호암동에서 천서를 받고 37세인 1860년 4월 5일 경주 용담정에서 천도를 깨우치고 을 창시하였다. 득도 후 4년간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친히 지어 많은 사람을 포덕하였다. 186년 海月 崔時亨에게 도통을 전수하고 12월 9일 관졸에게 체포되어 대구감옥에 갇혔다. 1864년 대구 장대에서 左道亂正律의 죄목으로 참형당하여 순도하였다.

10) 東經大全은 水雲 崔濟愚 先生이 저술한 原文이 한문으로 쓰인 경전으로 布德文, 論學文, 修德文, 不然期然, 祝文, 懺悔文, 呪文, 立春詩, 降詩, 絶句, 座箴, 和訣詩, 彈道儒心急, 詩文訣, 偶吟, 前八節, 後八節, 題書, 詠宵, 筆法, 遺誥音, 偶吟2 등 운문체의 다양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11)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12)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敎中央摠部.

합군에 의한 북경침략을 단행시켰다. 日本도 역시 1854년에 미국과 영국 등에 의하여 그전부터의 침략적인 개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은 이웃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도 즉시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져 朝野를 불안하게 하였다.[13]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朝鮮의 정치는 兩班이라는 지배계층에만 한하는 것이었고, 양반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존재했다.[14] 이러한 원리에 이끌려온 조선왕조의 정치는 순조이후 헌종·철종에 이르는 동안 어린 임금이 즉위하니 왕권은 극도로 약화되고 정치의 실권은 ……(중략)…… 척신에게 돌아가 변칙적인 세도정치가 약 60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이 노론에 의한 세도정치는 유교적 통치윤리나 통치규범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문벌이나 당파 또는 뇌물이 출세의 기준이 되고, 정책운영의 기조가 되었다.[15] 과거제도가 공정을 잃고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는가 하면 지방에서는 관리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조선의 사회체제는 양반을 지배계층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런데 이 양반 중심의 신분체제가 17세기이후 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세기에 이르러 급격한 신분체제의 변동을 나타냈다. 즉 封建的 身分等級制[16] 4계급이 있었는데 양반·중인·상민·노비의 四民 중에서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兩班이 늘어난 것은 상민들이 군역의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양반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양반의 수효가 늘어남에 따라 양반사회 내부에도 복잡한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중앙의 집권층·권문세도가에서부터 지방의 향반이나 토반, 그리고 권세도 재산도 없는 잔반에 이르기까지 양반사회의 분화가 일어난 것이다. 최하층의 잔반은 말이 양반이지 기실 상민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상민과 노비의 구별도 모호해졌다. 常民들은 양반으로 승격한 사람들의 몫까지 떠맡아야 했으므로 군역을 비롯한 조세의 부담이 늘어나 생활은 더욱 곤궁해지고 그 중의 상당수는 임금노동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노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었다. 奴婢는 도망친 사람도 있고, 전공을

13) 이현희(1994), 전게서, p.11.

14) 이상백(1965),「한국사근세후기편」, 을유문화사, p.275.

15) 김철준(1979),「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p.169~170.

16) 조선시대의 신분등급제는 兩班, 中人, 良人, 賤民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兩班은 조선사회를 움직여나가는 지배적인 사회층이었다. 그들은 관리가 되기 위하여 학업에만 전념하다 보니 거의가 五穀不分(오곡불분), 四體不動(사체부동)한 자로 되었다. 양반사회라 하여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었다. 즉 문무반의 차별, 특히나 '庶孼禁錮法(서얼금고법)'이 있었기에 양반이라도 서얼의 후손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도 없었다. 당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양인과 천민이었는데, 천민이 바로 사회최하층에 속하는 民人이었다.

세우거나 곡식을 바쳐 풀려난 사람도 많았으며, 양반 증가로 인한 납세자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였다.[17] 끝으로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 朝鮮王朝의 지도 이념이 쇠퇴하면서 벌어지는 외척에 의한 변칙적 부패정치 상황과 儒敎의 이념상실, 그리고 더없는 경제난 등의 내국의 혼란, 사회적 불안, 價値觀의 붕괴, 宗敎의 부패, 기성종교의 화석화 등등의 사회병리는 당시의 기층 민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적 이념과 정신적 안식처를 만들었다.[18]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신흥종교는 상당한 요인으로 인해 억압받는 민중들이 살아남으려는 의지의 발로였으며 그들의 생애를 대변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제반 문제를 수용하면서 출현한 東學의 사상적 배경을 몇 가지를 요약하여 살펴보겠다.[19]

첫째, 現實生活에 대한 危機意識이다. 당시의 제반 문제에 대한 불만은 사상적 혼란, 도덕적 가치와 퇴폐와 등이 민중들에게 생에 대한 절망감과 위기의식을 유발시켰다. 구한말 우리 민족은 정치적 주도권을 제국주의에 빼앗기고 경제적으로는 위기를 맞보아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민중들이 이것이 조선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위기의식은 새로운 종교, 사상의 출현을 재촉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에게 전래적으로 민간 신앙화 된 도참적 예언과 역사상의 운도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말대사상과 이에 대응하는 선경대망사상이 이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先天世界가 後天의 世界로 바뀌는 시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며, 開闢에 의한 심판이 절박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超强力한 힘을 소유한 선지자가 출현하여 외세를 누르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구세주가 나올 것을 희망한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던 것이다.

둘째, 旣成宗敎의 固着化에 대한 不滿意識이다. 이러한 기성 종교 전통에 대한 불만족과 天主敎의 流入으로 민중들은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당시의 정치사상의 주체가 되었던 儒敎의 그 이념인 修己治人으로 至善한 도덕을 실천한다는 근본정신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직 도학, 예학 등의 공리론에 빠져 학파, 당파 등의 학벌형성을 일삼고 명분과 권력을 찾는 데에 급급하였다. 더구나 한국 종교사 속에서 오랫동안 서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佛敎마저도

17) 이기백(1979), 전게서, p.299.

18) 유병덕(1986),「한국의 신흥종교」, 시인사, pp.95-100.

19) 이 요인의 주요 내용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의「한국문화사대계」, '신흥종교편'을 참조하였음.

巫俗的 祈福 佛敎로 전락되었고, 이에 맞추어 들어온 天主敎의 擴大는 민중들에게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새로운 종교의식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민중들은 西學을 능가할만한 우리의 민족종교가 나와 온 세계를 주도하여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발현하기도 하였다.

셋째, 信仰에 대한 自由 開放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儒敎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설정하고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더구나 유교 내에서도 程朱學 이외의 학문은 이단으로 취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여도 斯文亂賊으로 몰아서 참형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종교계의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신앙의 자유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완강했던 유교가 정치의 혼란과 더불어 민중들은 어떠한 종교도 신앙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교나 불교가 아니면 소박한 民族信仰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 민족은 새로운 종교를 신앙할 수 있다는 의식과 함께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東學이 발생하였다. 天道의 원리를 東學이라 명명한 까닭을 水雲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말하기를 도를 함께 한다면 즉 그것을 서학이라 할 것인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는 동에서 태어나 동에서 받았다. 도는 천도를 말하지만 학은 동학이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나 추에서 교화를 폈다. 이리하여 추로의 학풍이 이 세상에 전해 내려 왔다. 나의 도는 조선에서 받아서 조선에서 펼 것이니 어찌 서학이라 부르겠는가.[20]

이는 東學이 天主敎에 대한 東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이는 東學은 동방, 즉 東國인 조선의 민족적인 입장에 의한 대립적인 동서 세계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東學思想은 우리의 민간신앙과 전통사상은 물론이요, 그 밖에 儒· 佛· 仙 및 天道敎 등의 外來 여러 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21] 서구 세계의 사상적 무력적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의 팽배 속에서 발생한 東學은 고대사회 이래 佛敎, 儒敎, 天主敎등 외래의 종교와 사상에 눌려서 빈번히 高等宗敎로서 상승할 기회를 잃었던 우리 민족의 소도적 토착신앙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

20)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21) 장대희(1983), “동학의 민중교육과 동학사상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p.23.

문에 東學思想에는 강한 주체성이 깔린 反外勢的, 反西學的인 요소가 많았다. 즉 서구의 帝國主義的 東漸에 대한 저항적인 요소인 것이다.[22] 이상은 동학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東學思想의 가장 핵심적인 동학의 인간관인 '侍天主 思想'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東學의 人間觀

人間觀이란 인간의 발생, 본질과 속성 등 인간을 보는 관점을 말한다. 東學은 단군신화의 한울님에서 시작되어 韓國思想속에 토착되어진 기성종교인 儒·佛·仙을 포괄적으로 통합·조화하여 면면히 내려오는 儒佛仙 合一思想을 이끌어 내고 있다. 조선의 유교 즉, 性理學은 조선시대의 지도이념이자 생활을 규율하는 실천적 규범이었지만 조선사회를 이끌어 오는 동안에 사회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오랫동안 性理學과 禮倫에만 치우치게 되므로 하여 경세의 학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이상적 학문으로서의 구실을 해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18세기경 일부 선각자 계층에서 일어난 양반사회의 모순과 비리 그리고 불합리 등을 제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대안의 제시는 세계사적 발전 추이에 병진하는 새로운 사상체계이기도 하였다.[23] 이와 같이 儒敎가 그 지도이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19세기 조선 사회를 思想的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윤리관과 종교관이 절실히 요청되었고 이에 토착적이며 소도적인 민족의식을 갖고 출현되는 것이 바로 東學思想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세계의 사상적, 무력적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의 팽배 속에서 발생한 東學은 고대사회 이래 佛敎, 儒敎, 天主敎 등 외래의 종교와 사상에 눌려서 번번이 고등종교로 상승할 기회를 잃었던 우리 민족의 토속적 신앙의 발로였다. 그렇게 때문에 東學思想속에는 강한 주체성이 깔린 반외세적, 반서구적 요소가 많았다. 즉 서구의 제국주의적 동점에 대한 저항적 요소인 것이다.[24] 東學의 근본사상으로 인간 중심에서 더 나아가 人間의 尊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한울님은 모든 사람이 다 몸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여 평등한 인간 존재를 강

22) 정창하(1979), "동학사상 및 동학혁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p.9.

23) 이현희(1981), "동학사상의 배경과 그 의식의 성장", 「한국사상 18집」, 경인문화사, p.77.

24) 정창하(1979), 상게논문, p.9.

조하고 있다. 또한 水雲은

> 음과 양이 서로 어울려 비록 백 천 만물이 그 속에서 화해 나지마는
> 오직 사람이 가장 신령한 것이니라.[25]

人間을 가장 신령한 존재로 宇宙의 中心으로 본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귀한 것은 오로지 侍天主인 까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이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저절로 얻어지고 한울님을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26]는 것이다. 한울님을 모시는 것은 無爲而化를 통해 한울님의 무한한 덕화, 즉 한울님의 섭리를 얻는다는 것이다.[27] 이는 곧 개개인 각자는 누구나 본질적으로 한울님을 모심으로써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28]라는 신비한 경지를 통해 누구나 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사상은 지극히 宗敎的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상 밑바탕에는 人間中心主義 思想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지벌과 문벌을 떠나 인간이라면 노비든지 천민이든지 서자라든지 누구나 수심정기와 성·경·신을 통해 군자, 즉 무궁한 존재[29]가 될 수 있다는 인간평등·인간존중의 사상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侍天主 思想은 한울과 인간관의 관계를 동격으로 취급하여 인간성 내부에 한울님을 모신 존재로 보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으며, 빈부귀천의 차별주의를 반대하여 횡적인 평등관계를 제시함으로서 근대적인 인권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면서 한울님을 모신다는 것은 無爲而化를 통해 한울님의 무한한 덕화, 즉 한울님의 섭리를 얻는다는 것이며[30] 민중 각자는 누구나 본질적으로 한울님을 모심으로써 신비한 경지를 통해 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侍天主는 東學의 중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일철은 東學에서 侍天主가 갖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

25)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陰陽相均 雖百千萬物 化出於其中 獨惟人 最靈者也"

26) 東經大全, 呪文, 天道敎中央摠部, "侍 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27) 최동희, 전게서, p.89.

28)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29) 龍潭遺詞, 興比歌, 天道敎中央摠部. "글도 역시 무궁하고 말도 역시 무궁이라 무궁히 살펴내어 무궁히 알았으면 무궁한 이 을속에 무궁한 내 아닌가."

30) 최동희(1980),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89.

동학의 중심신앙은 경신 4월 5일에 대각한 시천주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만인이 각기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하단 말가'의 시천주의 주체로서의 자각이며 이 자각이 양반과 서민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가 다 같은 군자로서 인간평등의 인간관을 마련해 준다. 누구든지 귀천, 상하, 반상의 차별을 불구하고 각자 자기 몸에 천주를 모시면 다같이 지상천국이요, 군자로다. 시천주 신앙에서는 봉건적 신분차등은 부정되고 시천주의 주인으로서 만인은 평등하다. 실로 수운의 시천주사상은 천주의 각 개인의 내재화를 통해서 인간관의 세속화에 성공했고, 그 때문에 사인여천의 인간 존엄성의 근대적 원리를 선각한 근대인의 발견자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운은 보편적인 천주·천도를 순수 양반의 가치에서 널리 서민 대중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기를 서학에서와 같이 만인의 신앙 대상으로서의 천주를 시천주 하는 데서 찾고 있다.[31]

東學思想은 밑바탕에서는 인간존중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水雲의 侍天主는 義菴 孫柄熙(1861-1921)에 와서는 人乃天 思想[32]으로 표현된다. 즉, 東學의 人乃天의 종지도 侍天主에서 유래한 것이다. 人乃天思想은 儒家에서 말하는 '人心則天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東學의 새로운 창도, 여기에서 儒家에서 말하는 '人心則天心'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사상의 비약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33] 1905년 12월 東學을 天道教라고 개칭하여 국내에 선포했고, 1907년 10월에 「大宗正義」를 비롯한 10권의 책이 나왔는데 人則天人을 일보 발전시킨 것이 '人乃天'사상이다.[34]

---

31) 신일철(1980), "최수운의 역사의식",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p. 20.

32) 윤노빈(1989), 「동학의 세계사상적 의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p.163
人乃天思想은 東學의 대종적 요지이지만 동학의 고안품이거나 동학의 전유물은 아니다. 공자나 석가나 예수가 인간본성의 창조자가 아닌 것처럼 탄생 이전에도 사람은 한울님이었다. 공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동양인들은 인자하며 의롭고 예절바르며 지혜로웠던 것처럼, 코페르니쿠스 없이도 지구는 자전하며 공전하는 것처럼, 水雲·海月·義菴없이도 사람은 곧 한울님이다. 人乃天 혁명은 수운의 소유물 또는 사유물이 아니다. 이 출현한 1860년대에 와서 비로소 사람이 한울님으로 승격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이 땅위에, 이 하늘위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곧 한울님이다. 누구보다 더 水雲이 이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教訓歌에서 그는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어서라"고 가르쳤다. 에서 천명한 인내천 혁명은 이 原人乃天思想을 대각한 결과이다. 이근원적 인내천사상은 종이위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인류의 심장 속에 살아있는 경전으로서 사람들의 가슴 깊이 간직되어 왔으며, 인류의 집단적 피로써 생생하게 기록되어 왔다.

33) 최무석(1988), "동학의 도덕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p.42.

34) 최동희(1976), "천도교사상."「한국문화사상대계」, 고려대학교 문화연구소편, pp.671-676.
人乃天이라는 말은 「大宗正義」에서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人乃天 思想은 義菴이 초기에 지었다는 「角世眞經」에 나타나 있는 '仁以侍天'사상의 확대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사람이 하늘을 모신다는 것은 東學에서 주자를 뺌으로써 의지적인 성격을 제거하고 만물의 性과 心이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을 모신다는 것이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가지 근본존재(三才)는 모두

> 대신사는 오도의 원조라 기 사상이 박으로 종하여 약에 지하니 기요지는 인내천이라. 인내천으로 교의 객체를 성하고 인내천을 인하는 심이 기 주체의 위를 점하여 자심자배하는 교체로 천의 진소적 루안에 입하나니 비는 인계의 초창 대종정의라 위함이 족하도다.[35]

人乃天의 교의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당시의 계급의식을 타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다. 人乃天이란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吾心卽汝心'[36]. '天心卽人心'[37]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人乃天은 海月先生法說註解의 敎理問答에 잘 표현되어 있다.

> 포덕 32年(1891) 2월에 신사〔海月〕께서 청주 김성동으로부터 공주의 신평리에 이거하였는데 이때 각지 도인들이 찾아와 도를 묻는 자가 많았다. 제자들이 묻기를 "천지의 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하니 신사께서 대답하되"사람의 일동일정에 있나니라."하고 제자들에게 묻기를 "강화의 교라 함은 무엇인가?"하니 손병희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일동일정이 곧 천의 이기라. 하온즉 한울과 사람은 그 근원이 하나이니 사람이 만약 사욕을 버리고 천심으로써 말하면 이것이 곧 천어가 될 것입니다" 신사께서 아무 말이 없었다.…(중략)… 하늘과 땅과 사람은 모두 하나의 이기이다. 사람이 곧 하늘 덩이요, 하늘은 만물의 정기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이니 사람 밖에 하늘이 없고 하늘 밖에 사람이 없다.[38]

一氣의 조화일 뿐이다."라고 하여 만물의 본성이 하늘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곧 授受明實錄에서 "사람이 곧 천인이란 천이 만물을 화생하고 그 뜻을 사람의 형체에 맡겨 뜻대로 만물을 쓰게 한 것을 뜻한다." 라고 했다. 곧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같은 해에 지었다는 道訣에서도 "감히 이루어 통하게 하는 것이 하늘이 아니고 무엇이랴"라고 하여 필연적인 인과관계와 같은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이는 결국 明理傳에서 표현한 대로"사람이 곧 천인이다(人則天人)"라는 이치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에서 나온 듯하다. 초기 人乃天 思想을 체계화하는데 활약한 사람은 芝江 梁漢默(1862-1919)이다. 그는 義菴과 함께 일본에 머물다 귀국하여 이 시기의 교리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당시 일본의 "天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 福澤諭吉(1835-1901)과 같은 명치의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 아래 철학을 배웠고, 천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天道敎 창시자의 사상적 요지를 人乃天이라 규정했다.

35) 大宗正義(1907), 天道敎中央摠部.

36) 東經大典, 布德文, 天道敎中央摠部.

37) 東經大典,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38) 海月先生法說註解(1978), 天道敎中央摠部.

한울 마음이 곧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우주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며 인간성이 곧 우주 본성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人乃天이라 함은 人間의 체제적 매몰로부터의 해방이요 동시에 존엄성에 대한 각성이었다. 따라서 그 궁극적인 이상이라는 것은 사후의 來世觀이라기보다는 우선 눈앞의 현실의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세주의적 개혁의지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人乃天의 人本主義, 특히 平等主義, 女性尊重, 兒童尊重, 道德主義, 民族主義는 국내적으로는 계급관념으로 일관하던 朝鮮의 봉건적 잔재를 타파하는 데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39]

Ⅲ. 東學의 敎育思想

東學思想이 당시 너무나도 인위적인 불평등에 의하여 억압을 받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侍天主 思想을 통한 빈부귀천의 차별주의를 스스로 반대하면서 낡은 신분관계 위에 선 윤리관을 반대하여 새로운 人間觀을 세운 水雲의 공적은 근대적 민권사상의 선각자이며 당시 사회전반에 걸쳐 소외되었던 민중들을 내면적 한울님을 모신 인간으로 탄생케 한 것이다. 인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조항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과 기본 목적인 敎育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다.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 자질을 구유하게 하며 민주국가의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 현실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40]

우리 憲法의 全文에 나타난 弘益人間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東學의 人間平等思想과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존중사상과 일맥상통한

39) 신복룡,(1985),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평민사, pp.211~213.

40) 김경식(1988),「교육학개론 신강」, 교육과학사, p.103.

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단군성조의 건국이념으로 우리민족이 수 천 년 간직하여온 민족적 신념이다. 단군신화에는 무엇이고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平等의 思想이 나타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첫째로 천상과 지상을 평등으로 생각하고 천상의 천국을 지상에도 건설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졌다. 東學이 한국사상사에 있어 근대적인 人間主義 思想을 표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의 해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의 경지로 끌어 올린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 이해의 방식은 인간주의의 극치를 나타낸 것으로 전통의 구속과 굴레로부터 인간해방의 선언이자 인간의식 전환의 확실한 기점에 다다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새 敎育思想을 정립함에 있어 東學과 같은 사유 체계를 수용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형성에 있어서는 인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며,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는 관점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41] 교육사상이란 인간이 교육에 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의 총체를 뜻하는 것으로 교육에 관한 인식과 그 지향성의 존재형태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무난할 것 같다. 교육사상은 경우에 따라 '교육이념', '교육관', '교육 이데올로기' 등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교육사상의 경우 교육이나 사상 양쪽 모두 완결되거나 한정적인 것은 아니며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교육사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42] 東學의 造化 개념은 창조론도 아니며 과학적 진화론도 아닌 至氣에 의한 造化論인데 이것은 一神論的 創造論과 無爲而化的, 즉 자연적 진화론을 포용, 융화하는 개념[43]이라는 점에서도 그 창조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東學은 온 만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진화된 것으로 인식하여 侍天主하면 人乃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 과학의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여기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인간의 육성을 근본이념으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무궁한 人間觀, 自律的 人間觀, 創造的 人間觀의 敎育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地上天國을 이루려는 後天開闢 사상으로 이어졌는데 이 개벽은 인간의 精神開闢으로 시작되어 民族의 開闢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인류의 同歸一體를 도모하는 社會開闢으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이 人間開闢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형태

41) 손인수(2002), "東學의 교육관", http//www.donghakinfo.com 논문자료에서 인용.

42) 이원호(1992), "한국교육사상의 좌표와 전망", 「교육사상연구 제1집」, p.9.

43) 김용준(2002), "동학의 인간관",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논문자료.

를 지닌, 각자위심하지 않는, 同歸一體할 수 있는 인간, 즉 인간 본연의 길로 갈 수 있는 인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간교육관이며 교육사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44]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東學思想은 인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며, 상실된 자아를 자각하는 인간적 주체성 확립과 輔國安民의 민족적 주체성을 겸비한 인간육성이라는 그 실천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교육사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東學의 기본사상 중, 侍天主, 人乃天 思想을 기초로 人本主義 敎育思想, 平等主義 敎育思想, 女性尊重 敎育思想, 兒童尊重 敎育思想, 道德主義 敎育思想으로, 東學의 輔國安民 思想을 기초로 한 民族主義 敎育思想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 人本主義 敎育思想

東學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宇宙生命體의 일부인데 사람이나 우주만물은 전부다 至氣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유출되었거나 혹은 진화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水雲 말하기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무궁(無窮)한 이 울 속에 무궁(無窮)한 내 아닌가.[45]

하물며 만물지간(萬物之間) 유인이 최령(最靈)일세.[46]

이것은 만물의 탄생을 전부 도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는 道學[47]의 自然進化論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주장하던 조물주의 창조설과는 명확한 구별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 성격으로 보아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바로 한울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모신다'는

44) 장원배(2002), "동학의 교육사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34.

45) 龍潭遺詞, 興比歌, 天道敎中央摠部.

46)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摠部.

47) 道學의 창시자 '老子'의 道德經은 5,000여 言이나 되는데 그는 '道'를 줄거리로 하여 전개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道'는 우주만물의 본류인데 우주만물은 모두 道에서 파생된다는 것이다. 즉 우주 음양 만물은 모두 道에서 화생한다. 그러면서 '道'는 천시, 천형, 천상, 천명한 것으로서 자연천위적이라고 인정하였다.

것은 한울님을 알고 믿어서 섬김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이 사는 근본이 한울님을 믿고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모시고 섬기는 데 있다고 본다. 바로 이렇기에 사람은 '宇宙의 最靈者'라는 것이다. 근본적 의미로 보아 侍天主란 바로 사람과 한울님은 하나라는 뜻이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귀성이 있으며 동시에 마음속에는 한울님 같이 고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待함에서 한울님 대하듯이 하며 또한 한울님 섬기듯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존엄성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 상호간에 계급적 신분, 성별 차별에 제한성이 없는 人間平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울님을 믿으며 섬긴다는 것은 東學에로의 入道와 더불어 이루어지게 된다. 무릇 그 어떤 사람이나 東學에 입도하면 상하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侍天主信仰에 의하여 至上神仙 또는 君子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水雲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입도(入道)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君子)되어
> 무위이화(無爲而化)될 것이니 지상신선(至上神仙) 네 아니냐.[48]

水雲은 입도 결국 東學의 가르침에 귀의하면 至氣에 의한 무위이화로 한울님의 덕화를 입어 자연스럽게 군자, 신선이 된다고 상술의 사상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는 당시 家父長制度가 철옹성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夫和婦順을 주장하였으며, 男女有別의 장벽으로 하여 부녀자들의 행동이 크게 제한받거나 또는 지역 사회활동에까지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비추어 여자도 응당 교육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참가할 자각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반상, 적서, 남녀 등 차별이 심하였을 때에 이 같은 東學思想의 제기와 실천에 옮김은 당시 封建的 身分等級制의 쇠사슬에 얽매여 몸부림치던 사회최하층 민중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되찾을 방도를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민중들의 사상해방의 방향을 밝혀 주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유학 신분등급제에 대한 유력한 반발이며 조선봉건사회에 대한 힘찬 도전이기도 하였다.[49] 東學思想의 중심은 天 즉 한울님 사상에 있다. 東學이후에 天道敎라 개칭한 이유도 東學의 중심사상이 天에 있기

48) 龍潭遺詞, 敎訓歌, 天道敎中央摠部.

49) 임현구(2000), "최제우의 보국안민 사상", 「동학연구 제7집」, pp. 97-99.

때문이었다. 天에 대한 敬思想은 우리민족 전래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東學에 와서는 천의 개념이 또 다른 면에서 인식 되고 있다. 東學의 天은 무엇인가? 水雲은 천의 실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대저 인간(人間) 초목군생(草木群生) 생사재천(生死在天) 아닐런가
> 불시풍우(不時風雨) 원망(怨望)해도 임사호천(臨死號天) 아닐런가.[50]

여기서 천은 유능한 실재로서 우주 삼라만상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주재하시는 자로 한울님을 의미하며, 한울님은 모든 사람이 다 몸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여 평등한 인간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전래의 경천사상이나 기독교의 하나님 존재와도 다른 東學의 최대에 특징사상인 것이다. 또 水雲은 東學을 가르치면서

> 오도는 사람 성 자연을 근본으로 한 것인 고로 무위이화로 되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한울 마음을 지키고, 한울 기운을 받고, 한울 성품을 거느리고, 한울의 가르침을 받으면 기화가 자연의 가운데서 나와서 사람과 한울이 둘이 아니요, 한울 기운이 내 기운이 되며 내 기운이 한울 기운이 되어, 서로 떠나지 못하는 그 이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곧 한울이라는 人乃天 思想이 엿보인다. 이 人乃天 또는 侍天主를 내세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평등을 교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왕조에서 귀천, 상하, 반상이 차별되고 어른과 아이가 차별되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고, 그 비인도적 불평등사회가 내포한 폐허가 너무도 컸다. 특히 조선말기에 와서는 조선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무질서가 극에 달하여 서민들의 생활이 무척이나 괴롭고 어려웠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여기에 전통적인 사회체제의 개혁을 열망하는 민중의식이 태동하고 그 구체적 표현의 하나가 人本主義 思想의 양양이었다. 바로 이런 민중개화의식을 투철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 東學의 人乃天思想인 것이다. 그리고 人乃天에서 유래된 人本主義思想은 자유해방의 사상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상이며, 이것은 근대민주주의 사상이기도 하다. 朴鐘鴻은 이 인내천 사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

50)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敎中央摠部.

다.

> 현대사상이 휴머니티를 자주 문제 삼는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외친다. 그러나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보다 더 어디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조하는 사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곧 한울이라면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죄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특색이 있다. 인내천의 종지는 현대의 어느 민주주의 사상보다도 철저하고 깊은 것이 아닐 수 없다.[51]

東學의 人乃天 思想은 사람이 한울과 같다는 동격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사상으로 東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사상인 것이다. 그 시대에 인륜이 떨어져 상민, 서민이 된 한이 뼈에 사무치는 하층민에게도 존엄하고 평등한 능력의 실존인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이는 天地開闢의 신사상으로 민중들에게 스며들어 갔다. 海月은 水雲의 侍天主 思想을 좀 더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하여 事人如天이라고 가르쳐 인간상호 존중의 근대적 인간관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는 바로 敬人思想으로서 남녀·상하·존비를 막론하고 敬을 적용하라는 인격존중의 사상인 것이다. 東學思想에서 人間至上主義가 핵심적인 것으로 내세워지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우주정신이 인간에 의하여 가장 뚜렷이 표현되었다는 일종의 진화론적인 우주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즉 인간의 격을 우주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간(人間)의 격(格)이란 것은 우주의 모든 격(格)중에서 가장 완전(完全)한 격(格)을 이름이니 인간의 격은 우주격(宇宙格)을 대표한 최고의 격(格이)다. 원래 우주는 절대유일(絶對唯一)의 격(格)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유일의 격(格)은 우주 자체의 무위이화(無爲而化)의 법칙(法則)에 의하여 천차만별(千差萬別)의 격(格)을 이루어 놓았다 할 수 있다. 성운(星雲)에는 성운의 격(格), 태양계(太陽系)에는 태양계의 격(格), 물질(物質)에는 물질의 격(格), 식물(植物)에는 식물의 격(格), 동물(動物)에는 동물의 격(格)으로 나타난다. 우주격(宇宙格)은 이와 같이 진화(進化), 향상(向上)하면서 최종으로 인간격(人間格)이라는 격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52]

---

51) 박종홍(1959), “한국사상연구의 구상”, 「한국사상 제 1·2합집」, 고구려문화사, p.14.

52) 이돈화(1933), 천도교 창간사, 천도교 중앙 종리원, p.40, 심형진(1998), “동학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 교육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23~24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언급하여 성운, 태양, 물질, 식물, 동물의 격이 있으나 그중에서 최고의 우주의 격이 人間의 格이라 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격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하늘, 땅, 생물, 무생물계 모두를 포함하여 인간이 최고라는 人間尊嚴性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海月은 十毋天(십무천)에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毋欺天(무사천)하라 한울님을 속이지 말라.
② 毋慢天(무만천)하라 한울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
③ 毋傷天(무상천)하라 한울님을 해치지 말라.
④ 毋亂天(무난천)하라 한울님을 혼란시키지 말라.
⑤ 毋夭天(무요천)하라 한울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
⑥ 毋汚天(무오천)하라 한울님을 더럽히지 말라.
⑦ 毋餓天(무아천)하라 한울님을 굶주리지 말라.
⑧ 毋壞天(무괴천)하라 한울님을 허물어지게 하지 말라.
⑨ 毋厭天(무염천)하라 한울님을 싫어하게 하지 말라.
⑩ 毋屈天(무굴천)하라 한울님을 비굴하게 하지 말라.[5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기서 天을 人으로 대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東學의 근본 종지가 侍天主 함으로서 결국 人乃天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人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나와 남을 존엄하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소외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와 같이 東學은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에 두고 인간본위의 내적·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상으로 현대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소외와 인간부재의 해결방안을 지니고 있음으로 이를 교육화 시키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54] 水運의 侍天主에 내포된 '天卽人 人卽天'이 海月에 와서는 養天主와 事人如天으로 인식되고 義菴은 이를 人乃天으로 표현하였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사상으로 人本主義 敎育思想과 연관된 것으로 十毋天의 강조, 인간적 삶을 획득하기 위하여 일어났던 東學革命, 廣濟蒼生하여 同歸一體를 이루려고 하는 東學의 기본적인 사상 등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식이 저

53) 海月神師法說, 十毋天, 天道敎中央摠部.

54) 이헌동(1993), "동학의 교육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p.69-70.

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더욱이 侍天主에서 비롯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人乃天 思想은 한울님을 사람밖에 몇 개의 주재자를 설정하여 사람은 한울님아래 지배를 받는다는 종래의 모든 사상과는 크게 다른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東學의 人乃天 思想은 인간을 지고지귀한 한울님과 동격으로 설정함으로서 그때까지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창안한 휴머니즘 중에서도 최고의 휴머니즘을 창도한 획기적인 것이었다.[55] 이러한 인류 최고의 휴머니즘도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전제로 된 사상인 것이다. 東學에 있어서 인간은 누구나 侍天主의 존재로서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진 위대한 존재로 파악되고 있다. 한울님을 모신 인간은 이 우주 내에서 한울님의 근원적 질서에 따라 화생된 것 중에서 가장 신령한 존재이므로 한울같이 모셔야 한다. 水雲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떠난 한울님이란 생각할 수 없으며 한울님의 가르침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한울을 떠날 수 없고 한울은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사람이 한번 숨쉬고 一動靜과 一衣食은 사람과 한울이 상호 교환하는 기틀이 되어 한울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56]라고 하여 事人如天[57] 즉 사람을 섬기기를 한울님을 섬기듯이 정성되게 섬기라는 것이다. 東學은 근대적 인권사상을 주창하였으며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 되었던 민중들에게 내면적 한울님을 모신 인간으로 탄생하게 하였다. 위내용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보면

> 마음에 몹시 이상한 생각이 나서 다시 수심정기(守心正氣)하고 묻기를
>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 사람이 어찌 이를 알았으랴…….[58]

한울님을 모신다는 뜻은 人間自身을 모신다는 뜻이며 이것을 人乃天으로 人間平等을 강조하고 인간교육의 목표로서 설정되었다. 人間敎育이란 人間을 궁극의

---

55) 신용하(1990), "동학사상의 역사적 성격", 「신인간 제 12월호」, p.10.

56) 天道敎中央摠部 編 (1986) 海月神師法說(天地父母), 「神師聖師法說」, 天道敎中央摠部 出版部. 포덕 127년, p.34. 신사성사법설은 해월신사법설과 의암성사법설로 나누어 이후의 해월신사법설과 의암성사법설의 원문은 이 문헌을 사용하였다. "人不離天 天下離人 故 人之一呼吸 一動靜 一衣食 是相與之機也 天衣人 人衣食 萬事知 食一碗"

57)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敎中央摠部. "人則天 事人如天."

58) 東經大全,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목적으로 보며, 최고의 가치로 보는 것으로 人乃天 思想과 같이 학교는 인간애로서 빈부귀천이나 능력의 여하를 떠난 소양을 쌓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사람됨을 만드는 것이라면 하루 속히 人間을 위하는 人間化 敎育으로 東學의 人乃天 思想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人間을 目的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며, 手段이나 方法으로서 취급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인간의 가치를 목적으로 한 교육은 인간의 사상과 정신, 육체까지도 올바른 방법으로 발전시킨다고 볼 때, 東學의 人乃天 敎育이야말로 人本主義 敎育思想이며 이러한 정신적인 전통의 교육풍토로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다. 學校敎育의 철학적 근거로 人間尊重의 思想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人間에 대한 불신을 타파하고 인간부재의 사고방식에서 東學이 실천덕목으로 제기하는 誠實·恭敬·信義를 바탕으로 人間尊重의 정신계발에 투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人乃天의 敎育思想은 결국 인간이 주체가 된 교육으로 인간이 목적이며, 최종의 추구하는 것이 인간완성인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人乃天의 敎育理念은 다른 표현으로 敎育의 人間化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59] 인간교육을 주창하는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서구의 어느 교육사상도 따를 수 없는 敎育價値觀이며 이 사상이야 말로 우리가 세계에 드러내어 자랑할 만한 우리민족의 훌륭한 교육사상이라 할 수 있다. 敎育이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人間形成의 과정이라고 볼 때, 인간의 교육이야말로 인간 삶의 至高의 가치관일 것이다. 東學思想은 교육은 인간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人間形成의 한 방법으로 사람답게 살게 위해서는 먼저 自我의 覺性이 있어야 한다고 東學에서는 주장하는데 이것은 自身이 貴中한 存在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東學思想은 인위적인 불평등에 의하여 억압받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었다. 東學의 侍天主 신앙을 통한 빈부귀천의 차별주의를 스스로 반대하면서 낡은 신분 관계위에 선 윤리관을 반대하여 새로운 人間觀을 제시하였다.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오직 인간을 인간의 인격 그 자체로 존중하라는 敎育思想으로 이는 인간을 하늘과 같이 존중하라는 天賦的인 인내천 사상이 깃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强權을 가진 자 약자 무시하며 건강한 자 신체장애자 천대시하며, 학식층, 문맹인 가까이 하지 않으며 부귀 자, 빈천 자 천대 하는 것이 현 흐름이지만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이러한 것을 완전히 배제한 체 오직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하라는 교육사상으로 현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반드시 권장할 만한 사상이다.

---

59) 손인수(1992),「한국교육사」, 문음사, p. 521.

2. 平等主義 敎育思想

東學思想의 핵심은 侍天主, 天의 사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天主 또는 한울로 표현되는 한울님을 그 신앙대상으로 모시고 받드는 것이 곧 侍天主이다. 水雲은 봉건사회의 차별적 人間觀을 부정하고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며, 한울님을 마음 안에 모시면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侍天主 思想을 주장했다. 이러한 侍天主의 본체는 개개인이니 한울님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몸에 있다는 것을 알리며

>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어셔라
>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 하단말가.[60]

귀천·상하·상반의 구별은 철폐되고 각기 자기 몸에 천주를 모시면 다같이 地上神仙이요, 君子라 함으로써 만민평등의 인간관을 제시하였다.[61] 즉, 東學의 人間平等思想은 한울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나 성인군자인 지상신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시의 유교적 계층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윤리를 전개하였다. 水雲의 侍天主 思想은 계층에 관계없이 사람마다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내재적 존재로 보아 양반과 서민의 본질적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人間平等의 人間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侍天主思想에서는 봉건적 신분차별이 부정되고 侍天主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여 조선말기의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봉건적인 양반계급의 압제 속에 시달려온 민중들로부터 이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62] 平等[63]

---

60) 龍潭遺詞, 敎訓歌, 天道敎中央摠部.

61) 신일철(1974), “최수운의 역사의식”,「최수운 연구」, 한국사상연구회, p.24.

62) 장을병(1977), 「한국정치론」, 범우사 p.128.

63) 양참삼(1989),불평등과 차별적 사회문제, 한국사회 이론학회 편, 「평등문제와 우리사회」, 현상과 인식. 송준석(1993), 평등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10에서 재인용함. 평등(equal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aequalitat”에서 유래되었고 그 뜻은 동일, 공평, 공정, 정의, 무사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인 사전적 의미는 ① 양. 정도. 가치. 지위 따위의 동일, 균등, 동등, 동격, 대등한 것. ② 균일성(ubifomity), 일양성을 뜻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평등의 개념에는 인간사이의 유사성을 전제하고 그것을 보장하려는 인간사회의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 평등의 신념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이 하나의 종이기 때문에 평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 이념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회적, 도덕적 철학으로 신분, 남녀, 노소에 관계없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64] 侍天主는 '내 몸에 천주를 모심', '한울님으로 몸으로 모심'이라는 뜻이다. 즉,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天主를 모시는 신앙을 통해서 비로소 인격적인 존엄성을 얻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侍天主는 모든 개인이 주체로서의 자각이며 이 자각으로 모든 신분차별이 철폐된다는 人間平等의 人間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水雲은 불평등한 정치, 사회구조 속에서 평등을 주창함으로써 당시의 서민들에게 인간평등의 중요성과 내면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알 수 있다.

약간 어찌 수신(修身)하면 지벌(地伐)보고 가세(家勢) 보아
추세(趨勢)해서 하는 말이 아무는 지벌이 좋거니와
문필(文筆)이 유여(裕餘)하니 도덕군자(道德君子) 분명타고
모몰염치(冒沒廉恥) 추존(推尊)하니 우습다 저 사람은
지벌이 무엇이기에 문벌에 비유하며
문벌이 무엇이게 도덕(道德)을 의논(論議)하노
.....
사람의 수족동정(手足動靜) 이는 역시 귀신(鬼神)이오
선악(善惡)간 마음 용사(用事) 이는 역시 기운(氣運)이오
말하고 웃는 것은 이는 역시 조화(造化)로세
그러나 한울님은 지공무사(至公無私) 하신마음
불택선악(不擇善惡) 하시나니[6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水雲은 사람을 지벌이나 문필 등의 외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인간본연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서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인식하였다. 東學의 사상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려는 교육을 실천해 왔다. 그는 자기 스스로 貧賤者와 동일시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인간평등의 조건은 균등한 권리(equal rights) 균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균등한 대우 (equal treatment), 균등한 배분(equal distribution)으로 집약되고 있다.

64) 정우현(1990), 「교육사회학 연구」, 교육과학사, p.62.

65) 龍潭遺詞. 道德歌, 天道敎中央摠部.

부귀자(富貴者)는 공경(恭敬)이요 빈천자(貧賤者)는 백성(百姓)이라.
우리 또한 빈천자(貧賤者)로 초야(草野)에 자라나서[66]

라고 하여 스스로 백성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後天開闢 다음의 시대에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貧賤者가 富貴者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67] 水雲은 유교적 사고의 틀에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였으나, 세상사람 누구나 道成德立하여 聖人君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인간평등의 근대적인 사상을 제창한 선각자로서의 우의가 인정된다. 水雲이 東學을 창도할 때 타락한 계급적 봉건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인간관계를 요구함으로써 인간성의 회복을 주장한 侍天主 思想 그 자체에는 인간간의 평등한 인격적 관계로의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에 압박받고 피해본 민중이 풍운처럼 모여 들었던 원인도 수운의 開闢思想속에 男女平等한 관계와 인간성 회복의 주장이 주목받아 성리학적인 지배질서의식에 묶여있던 여성의 해방[68]과 봉건적 상하의 지배관계성 부정에 있었다. 水雲의 이러한 人間平等思想은 그것이 관념에만 흐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간평등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상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69] 水雲의 이러한 平等思想은 그의 수양녀를 통해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녀는 水雲에 대해 말하기를

항상 온화하고 성실한 분으로 항상 책을 가까이 하셨으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셨다. 그리고 대인접물이 정중하여 집안 어린애에게도 손을 대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고, 강압적인 가장의 위엄이나 실력을 행사하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대화로서 사람을 설득하였다.[70]

고 하였다. 이것을 통해 水雲은 항상 사색하는 철학가, 종교가적인면과 인간의

66)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摠部.

67) 신용하(1995), "동학사상의 휴머니즘과 민주주의",「한국사상 22」, pp.126~127.

68) 이현희(1978), 「한국근대여성 개발사」, 이우출판사, pp.256-259.

69) 김현옥(1984), 동학사상과 여성의 근대화, 이현희(1984),「동학사상과 혁명」, 청아출판사, p.192에서 재인용,

70) 김기전(1928), 경주성지참관기록, 신인간 8월호.
김기전(1927), 대신사 양녀인 80노인과의 문답, 신인간, 9월호.

존엄성을 깊이 인식한 인류애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녀의 말 중 그녀에게도 글을 읽기를 권유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三從之道만 알면 최고의 여성으로 인식하여 女性의 敎育을 경시했고, 도리어 멀리하려 한 당시 인식과는 달랐다. 이같이 수운은 여자들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여, 근대적인 여성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71] 결국 여성과 아동들도 하나의 평등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한 水雲의 平等思想을 엿볼 수 있다. 水雲은 주자학적 차별 질서에서 파생된 사회적 불평등이나 지배계층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과 수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거의하지 않고 三綱五倫의 유교적 풍속이 쇠퇴하고 있음[72]을 표현함으로써 유학적 사회질서 자체를 시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東學의 이와 같은 平等思想은 2代 교주 海月에 이르러 실생활에 구체화되고 교도생활지침으로 전달 교육되었다.

> 천지인은 도시 한 이치의 기운이라. 사람은 한울 덩어리요, 한울은 만물의 정기이니라. 사람이 바로 한울이요, 한울이 바로 사람이니 사람밖에 한울이 없고 한울 밖에 사람이 없는 것이니라.[7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사람은 한울이요, 평등하고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인위로서 귀천을 분별함은 천의를 어기는 것이니, 제군들은 일절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水雲)의 뜻을 계승하라.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우선 도인된 사람은 적서의 차별을 두지 말라.[74]

>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니랴. 나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노라.[75]

---

71) 이현희(1994), 동학혁명사론, 대광서림, p.382-383.

72) 龍潭遺詞, 勸學歌: 天道敎中央摠部 "강산구경 다 던지고 인심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있지만은 인심풍속 괴이하다"

73) 海月神師法說, 天地人·鬼神·陰陽, 天道敎中央摠部, “天地人 都是 一理氣而已 人是天塊 天是萬物之精也人是天 天是人 人外無天 天外無人.”

74) 조기주(1979), 「동학의 원류」, 보성사, p.99.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敎中央摠部.

75)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敎中央摠部, “孰非我長 孰非我師, 吾 雖婦人小兒之言 可學而可師也.”

하여 人間과 한울이 동격이며 한울 아래서는 모든 人間의 差別이 없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의 事人如天을 강조하며 사람에게는 모든 차별 즉, 반상·적서·노주·남존여비·노소·빈부의 차별이 없는 것이니 가장 철저한 반봉건적 平等思想이며,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가장 민주적이며 근대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다.[76] 당시 사회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던 婦女子나 어린아이의 인격적인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근대적인 人間中心主義 발로이다. 사람을 하늘과 같이 높이 섬겨야 한다는 事人如天은 서로가 하늘과 같이 높일 때 비로소 봉건윤리에서 굳어진 人間差別에서 민주적인 平等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侍라는 것은 안에 神靈이 있고 밖에 氣化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侍子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各知不移者也)'이다. 인간관계가 남녀·장유·귀천에 따라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事人如天함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① 집안의 모든 식구를 한울같이 恭敬하라.
② 며느리를 사랑하라.
③ 牛馬六畜을 虐待하지 말라.
④ 사람이 오거든 한울님이 온다 하라.
⑤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⑥ 다른 사람과 是非하지 말라. 이는 한울과 是非하는 것이니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나같이 平等的 敎化思想의 실천 강령이다. 이처럼 東學의 발생에서 볼 때 표면상으로는 서학에 대한 반발로 연유된 일시적인 사회사상으로 넘길 수 없는 깊은 가치의 民族開化敎育思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人乃天은 바로 東學의 핵심사상이면서 인본적, 평등적, 민주적 현대교육사상과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77] 그리고 海月의 布諭文 모든 동학교도들에게 교육되었는데 그 중 아래 구절을 살펴보면

> 천(天)이 어찌 문벌(門閥)과 학문(學問)으로서 인(人)의 차별(差別)을 정(定)하였으리요. 제군(諸君)은 오직 천안(天眼)으로 인(人)을 시(視)할지오. 선천(先天)의 악습(惡習)으로

76) 김용덕(1965), 전게논문, p.188.

77) 이영종(1993), "동학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교육대학원, pp. 26-27.

대도(大道)의 평등(平等)을 오해(誤解)치 말라.[78]

라 하여 문벌·학문으로 사람을 차별치 말고 사람, 인간 그 자체를 平等하게 대우하라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것으로 오랫동안 노예나 짐승처럼 천대받던 인간을 제자리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상하구분을 두고 살아왔기에 많은 폐단을 낳았으니 이젠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平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東學이 제시한 윤리관은 차별위에 내려온 봉건윤리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近代 平等的 民主倫理를 제창한 것이다. 서로가 하늘과 같이 높일 때 비로소 봉건윤리에서 굳어진 人間差別에서 민주적인 평등한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79] 또한 海月은 유학적 차별 질서를 모순적 현실의 주요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 안에 두 가지 큰 폐풍이 있는데 첫째는 적서의 차별이요, 다음은 양반의 구별이라. 적서의 차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이니라.[8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고 하여 유학적 차별 질서관을 비판하였다. 이는 인간의 귀천상하, 양반의 차별을 부정하고 봉건적 세습의 모든 신분차별을 인정치 아니한 것이다. 이와 같은 平等·自由의 思想은 구한말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봉건적 양반계급의 압제 밑에 시달려온 일반대중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81] 東學의 平等主義 敎育思想은 인간은 누구나 道를 닦으면 한울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인간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인간의 소질개발과 가능성의 구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平等이란 인간의 基本權의 保障"을 가리킨다. 기본권이란 생명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 말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자신의 사상에 대한 권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기본권이 우리사회에서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보장 되지 않는다면 평등의 이념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의 이념이 실천되는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

78) 龍潭淵源, 東學 · 天道敎略史, 天道敎中央摠部. p.209.

79) 이원호(1983), 전게논문, p.28

80) 天道敎經典, 海月神師法說, 天道敎中央摠部, 難疑問答, 布德: "我國地內 有兩大弊風 一則 嫡庶之別 次則 班常之別 嫡庶之別 亡家之本 班常之別 亡國之本 此是吾國內 痼疾也"

81) 오익제(1884)외 6인, 전게서, p. 273.

만 가변적인 면이 적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평등에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平等의 가치변화가 중요한 일인데 가치가 인식되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東學의 平等主義 敎育思想인 것이다.[82] 東學의 平等主義 敎育思想은 적서, 남녀노소, 지벌, 문벌, 반상의 차별이 없는 平等하게 대우하라는 사상으로 그 당시 신분제도가 종적이며, 상하·복종적인 것을 횡적이며, 좌우·대등한 평등을 주장했던 것으로 그 시대에 두 노비를 수양딸과 며느리로 삼아 선구자적인 모범을 보임으로서 많은 대중의 귀감이 되었다.

3. 女性尊重 敎育思想

당시의 조선사회는 성리학에 기반을 둔 양반사회이며 남성 중심이었다. 혼인제도는 男歸女家婚에서 親迎制로 변화되었고, 가정은 가부장 중심의 가족질서가 확립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女性은 '忠臣은 不事二君하고 烈女는 不敬二夫한다'는 성리학적 이념에 의해 정절과 수절을 강요당했고, 夫爲婦綱의 수동적 삶을 살아야 했다. 조선 초기 東經大全에 법제화된 친영제를 비롯하여 再家女와 첩의 자손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禁錮法令 등의 정책은 사대부가의 여성에 적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일반 상민가의 여성에게까지 유교적 질서는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여성들이 성리학적인 가족제도와 윤리에 얽매어 살았다.[83] 이러한 성리학적 혼속과 제도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고 억압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아의식 확립을 가로막았고, 진취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들은 속박의 윤리 속에서 순응하는 삶을 訓育 받고 점차적으로 夫唱婦隨, 女必從夫를 여성의 최고덕목으로 여기며 가정에서만 생활하였다. 따라서 제도교육을 통한 여성의 교육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사대부가의 여성교육은, 가정에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에 부합하는 敎訓書를 통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82) 이헌동(1993), "동학의 교육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75.

83) 성리학적인 여성관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용덕(1964), "부녀수절고," 아세아 여성연구, 제3집, 숙명여자대학교.
김지용(1968), "내칙에 비춰진 조선여인의 생활상," 아세아 여성연구, 제7집, 숙명여자대학교.
박용옥 (1976), 「이조여성사」 한국일보사.
손후홍(1981), "조선시대 여성 교훈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이능화(1990), 「조선여속고」, 동문선.
허흥식(1994), "고려여성의 지위와 역할,"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일조각.

이루어졌다. 여성은 오직 三從之道를 따르며, 가사와 아들 낳는 일을 중시하고 七去之惡의 굴레 속에 살아야 했다. 夫婦有別과 철저한 男尊女卑 思想은 여성으로 하여금 孝婦, 賢母良妻로서의 완벽한 삶을 강요받았다. 水雲의 여성인식은 侍天主의 人間平等思想에서 기인하였다. 반상·적서·남녀의 계층적 구조를 초월한 절대적 평등이었다. 즉 양반과 상민, 적자와 서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리학적 二分法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平等認識에서 출발하였다.[84] 水雲은 가정의 화목은 道의 필수라 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이는 역시 그러해도 수신제가(修身齊家) 아니하고
> 도성덕립(道成立德) 무엇이며 삼강오륜(三綱五倫) 다 버리고
> 현인군자(賢人君子)무엇이며 가도화순(家道和順) 하는 법은
> 부인(婦人)에게 관계하니 가장(家長)이 엄숙하면
> 이런 빛이 왜 있으며 부인경계(婦人警戒) 다 버리고
> 지도역시 괴이하니 절통코 애달하다.[8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여 남편이 부인에게 성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여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道修歌의 가사로 노래했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였다.[86] 敎訓歌에서는 부부간의 도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탕패 산업 되었으니 원망도 쓸데없고 한탄도 쓸데없니
> 여필종부 안 일런가 자네 역시 자아시로 호의호식
> 하던 말을 일시도 아니 말면 부부화순(夫和婦順) 무엇이며
> 강보의 어린자식 불인지시 안일런가.
> ……
> 한울님도 이리될 우리 신명
> 지난고생 그다지 시키신고.

84) 정영엽(2001), “최시형의 생애와 여성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pp.51-53.

85) 龍潭遺詞, 道修歌, 天道敎中央摠部.

86) 박용옥(1981), “동학의 남녀평등사상”, 역사학보91. pp.109~111. 崔濟愚의 家和論은 종래의 지배 복종의 부부관계로부터 수평적 부부관계의 성립으로 보고, 성리학적 가족제도에 대한 일대 반기였다고 하였다.

이제껏 지낸 일은 다름이 아니로다.
인물대접 하는 거동 세상사람 아닌 듯하고
처자에게 하는 거동 이내 진정 지극하니
천운이 있게 되면 좋은 운수 회복될 줄
나도 또한 받아씁네.[87]

라 하여 夫和婦順의 교리를 가르친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부인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이를 통해 부부가 화합하면 가정이 화순해질 뿐 아니라 부부가 일시에 '吾心卽汝心'이 되는 경지에 다다른다고 하여 부부간에 '吾心卽汝心'의 경지를 설명하였다. 水雲은 남편이 부인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현숙(賢淑)한 내 집 부녀 이글보고 안심(安心)하소
대저 생령 초목군생(草木群生) 사생재천(死生在天)아닐런가
하물며 만물지중(萬物之衆) 유인(幽人)이 최령일세.[88]

이 설법을 통해 부인에 대한 지극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더욱 나아가 인간은 평등하므로 여성에 대해서도 지극해야 함을 도인들에게 알리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89] 水雲의 家和論으로 정립되어 가정에서의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였다. 그는 진실된 道를 얻기 위해서는 家和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가화에는 부인이 일가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水雲의 女性觀은 당시 유교사회의 굴레에 갇힌 여성들의 처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부인이 가정의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구성원 하나임을 깨닫게 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그 스스로 자신의 부인에게 실천하였다. 水雲은 부인의 고생에 대한 높은 평가와 侍天主에 의한 인격존중으로 家道和順과 夫和婦順을 실천하였다. 이는 정신개벽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90] 특히 수양딸에게 글을 배울 것을 종용한 것은 교육에서 제외되었던 여자들에게도 글을 가

87) 龍潭遺詞, 敎訓歌, 天道敎中央摠部.

88)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摠部.

89) 정미라(1992), "동학에 나타난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p.41.

90) 박용옥(1981), 전게논문, p.115.

르쳐야 한다는 女性敎育思想이었다고 볼 수 있다.[91] 東學의 思想이 당시 너무나도 인위적인 불평등에 의하여 억압을 받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행동은 당시의 사회적인 가치관으로는 혁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侍天主 信仰을 통한 빈부귀천의 차별주의를 스스로 반대하면서 낡은 신분관계 위에 선 윤리관을 반대하여 새로운 인간관을 세운 그의 공적은 근대적 인권사상의 선각자이며, 당시 사회전반에 걸쳐 소외되었던 민중들을 내면적 한울님을 모신 인간으로 탄생케 한 것과 민주적 사고의 표현이라 하겠다.[92] 水雲의 女性觀은 東學의 교세 확대와 함께 교도들에게 보급되었고 남성들의 부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여성들에게도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몰락양반, 하층민, 부녀자들이 東學에 입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성리학의 이념을 탈피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농민의 의식성장과 함께 精神開闢으로 남녀평등 사상을 형성하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평등을 주장한 수운은 三從之道만 알면 최고의 여성으로 인식하여 여성들의 교육을 경시하며 도리어 멀리하려한 당시 인식과는 달리 女子들도 敎育을 통해 意識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여 근대적인 여성의식을 깨닫게 하였다. 유교의 속박에서 허덕이며 살아왔던 당시 女性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93] 水運의 女性觀인 家和和順의 사상을 海月은 더욱 발전시켜 夫和婦順의 思想으로 확립시켜 東學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다. 侍天主의 인간평등사상을 설하면서 水雲과 海月은 東學의 근본 종지는 부부화합에 있다 하여 “道의 通不通은 오로지 內外의 和不和에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海月은 “夫和婦順은 우리 道의 첫째 宗旨”라 하여, 夫婦의 和睦을 강조하였는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 부부화순은 우리 도의 제일 종지이니 도의 통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이 도무지 내외의 화순에 있느니라. 내외 불화하면 한울이 크게 싫어하고 내외가 화순하면 천하가 안락하고 부모도 기뻐하며, 내외가 불화하면 한울이 크게 싫어하고 부모가 노하나니, 부모의 진노는 곧 천지의 진노이니라. ……
> 여자는 편성이라, 혹 성을 내더라도 그 남편 된 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

91) 홍창화(1991), 「천도교 교리와 사상」, 천도교중앙총부, p.152.

92) 강수원(1984)외 6인, 한국의 종교, 태학당, p.273.

93) 김현옥(1983), “동학의 여성개화운동 연구,”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13.

라, 한번 절하고 두 번 절하며 온순한 말로 성내지 않으면, 비록 도적의 악이라도 반드시 화할 것이니,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절하라[94]

부부화목하면 부모, 천지가 희락하며, 그 반대로 부부불화하면 부모 천지가 진노한다고 하여 부부는 일심동체로서 가정의 부부화목이 결국 부모, 천지화합과 연결되어 만사형통의 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부가 道의 중심임을 밝히면서 당시 내방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평생을 살았던 부인을 대하는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편이 부인을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로 대우하면 부모, 천하가 안락해진다는 女性尊重思想이 깃들어져 있다.[95] 여기서 강조한 夫和婦順의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에서 형성된 女性尊重思想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海月은 水雲의 家和論을 발전시켜 夫和婦順의 여성관을 정립시키고 여성을 가정의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절대평등을 주장하는 근대적 여성관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水雲의 인간평등사상을 근간으로 한 여성관은 家和論으로 정립되어 근대적 여성관을 맹아, 태동시켰으며, 이는 海月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인 여성평등관을 전개함으로 東學思想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주체적인 근대적 여성평등 개화론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96] 또한 海月은 이것은 여성들이 수도를 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과 중점적인 사상을 나타낸 것으로 1889년에 內修道文을 발표했는데 여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만들게 된 것이다. '人是天天是人'[97]이 될 수 있는 기초는 부가장의 위엄을 버릴 뿐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가장자신이 아직까지 명령, 지배 해왔던 부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海月의 근대적 여성관을 일반 민중에게 깊이 인식시켜 사회에 널리 보급시키는데 큰 기여한 것은 內則과 內修道文[98]으로 內則은 海月의 養天主의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사상에서 海月은 胞胎의 생명을 인간생명의 원초로 인식하여 양천의 첫 단계로 보았다. 그리하여 생명성장의 첫 소

94) 海月神師法說, 夫和婦順, 天道敎中央摠部. "夫和婦順 吾道第一宗旨也 道之通不通 道是在 內外和不和 內外化順卽 天地安樂 父母喜悅 內外不和卽 川大惡之 父母震怒矣 父母震怒 卽天地之震怒也 …… 婦人 偏性 其惑生性 爲其夫者 盡心眞誠 拜之 一拜二拜 溫言順辭 之惡 必入於化育之中 如是拜如是拜."

95) 송준석(2000), 전게논문, p.75.

96) 이현희(1986),「동학혁명과 민중」, 대광서림, p.104.

97) 박용옥(1981), 전게서, p.10.

98) 한국학보(1978) 12, p.201. 최시형, 「내칙」, 「내수도문」,「유훈」.

임이 부인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천지를 창조하는 근원으로 여겼던 것이다.[99] 內修道文은 부인들에게 수도하는 법과 도의 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海月이 가장 중시한 人乃天 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래의 실천사상을 통해 인간의 평등성을 부녀들에게 심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父母)님께 효(孝)를 극진히 하고
남편(男便)을 극진히 공경(恭敬)하고
내 자식과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며
하인(下人)을 내 자식과 같이 여기며……
부모님이 분노(憤怒)하시거든
성품을 거스리지 말고 웃고…….

집에 수채물이나 아무물이나 멀리 뿌리지 말고,
가래침을 멀리 뱉지 말며, 코를 멀리 풀지 말며……
묵은 밥은 새 밥에 섞지 말라. 묵은 음식은 새로 끓여 먹어라.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라. 만일 길이거든 묻고 가라……[1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부녀자인 여성의 가정주부로서 집안의 가계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부모, 남편,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법, 관리하는 방법, 즉 가정생활에 있어 위생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당시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부녀자들에 대한 올바른 생활지침을 자세하게 內修道文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잘 때는 잡니다. 일어날 때는 일어납니다.
방아 찧으러 갈 때는 방아 찧으러 갑니다.
찧은 후 몇 되 찧었더니 쌀이 몇 되 나왔습니다.
쌀그릇에 넣을 때는 쌀 몇 말 몇 되 넣었습니다.
……
금이 난 그릇에 먹지 말고 이빠진 그릇에 먹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101]

99) 정미라(1992), 전게논문, p.42.

100) 海月神師法說, 內修道文, 天道敎中央摠部.

라고 하여 부녀자가 어른, 부모를 모실 때의 행동, 실천요령으로, 계획적인 생활 습관을 실생활에 적용케 하였고 항상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라고 교훈하는 것으로 敬人·敬物의 사상이 깃들어 있으며 모든 일에 誠·敬·信을 다하라는 부인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修道文이다. 海月은 부인의 수도는 우리 道의 근본이라 하여 內修道文에서 女性尊重思想을 밝히고 있다. 1885년 海月이 서택순의 집을 지나다가 그의 며느리가 베짜는 소리를 듣고 그것은 바로 한울님이 베를 짜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가 청주읍에 지나가다 서택순의 집에서 며느리 베자는 소리를 듣고 서군에게 묻기를 "저 누가 베를 짜는 소리냐"하니 서군이 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베를 짭니다." 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베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베짜는 것인가"하니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치 못하더라. 어찌 서군뿐이리오 도인의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고 이르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 말하라.[102]

고 하여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지 말고 한울님을 모시고 養하는 고귀한 주체로 봐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남녀차별, 從屬이 있을 수 없다는 事人如天의 실천도덕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존재나 그 지위 인식은 봉건적 여성관을 타파한 근대적, 인간적 여성관의 발로임을 알 수 있다.[103] 海月은 水雲의 여성관을 계승 발전시켜 남녀간에 있어 절대평등을 주장하였고 여성을 교육시킴으로서 여성들의 능력을 사회발전을 위해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海月의 女性認識은 이후 3代 교조 義菴 孫秉熙에게 이어져 더욱 발전되었다. 海月이 水雲을 이어 東學을 체계화하며 여성의 평등의식을 대중화시킨 인물이라면, 義菴은 이를 계승하여 1920년대 天道敎 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20년대 민족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天道敎에서도 언론을 통한 여성 계몽, 여성 잡지, 여성 교육, 어린이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義菴은 海月의 內修道文을 위생보호장으로 계승하여 가정에서 부녀의 마음가짐, 태도, 위생, 환경관련 계몽운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01) 海月神師法說, 內修道文, 天道敎中央摠部.

102)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敎中央摠部. "余過淸州 徐柁順家 聞其子婦織布之成 問 徐君曰 '彼誰之織布之聲耶' 徐君 對曰 生之子婦織布也 又問曰 '君之子婦織布 眞是君之子婦織布耶' 徐君不卞吾言矣 何獨徐君耶 道家 人物勿人來言 天主降臨言."

103) 정미라(1992), 전게논문, pp.42-44.

으로 발전시켰다. 義菴은 여성도 완전한 인간으로 인식하여 人乃天의 思想에 포함시켜 나타냈고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성의 개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첩경임을 인식하여 교육사업을 강조하고 1906년에 부인 전도사 설치를 비롯하여 3개의 근대 여학교-同德女學校, 養德女學校, 明新女學校-를 운영하여 여성교육을 했다. 더욱이 義菴의 여성교육의 역설에 힘입어 1924년에는 內修團을 조직하여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104] 결국 남녀모두가 민족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매진케 함으로써 이를 장차 국권회복의 원동력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남녀의 차별개념도 개입될 수 없었다.[105] 東學의 女性尊重思想은 여성을 남성보다 우위가 아닌 남성과 동등한 兩性平等을 주장한 것으로 유교적 윤리가 강한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상으로 그 시대상황에선 대단히 파격적인 사상이었다. 요즘에 와선 동학의 인내천을 바탕으로 한 女性尊重思想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교의 전통적인 戶主制 폐지운동과 여성의 家長承繼權, 여성의 성을 자식이 따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東學의 女性尊重과 연관하여 그 흐름대로 현 시대적인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兒童尊重 敎育思想

우리의 전통적 유교교육에서 대부분은 아동들의 인격에 대한 대우는 매우 경시되어 있다. 이에 東學은 하대 받고 천대받던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東學의 지도자인 水雲과 海月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海月이 아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水雲의 敎育思想은 그의 인간관에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는 누구나 무궁한 존재로서의 자아에 대한 자각적인 인간으로 육성함에 그 근본이념을 둔 것이다. 東學의 兒童尊重 敎育思想은 이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아동교육의 방향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東學의 兒童尊重敎育思想으로 발전되는 바탕이 된다. 다음의 내용은 水雲의

104) 허정(1987), 전게논문, p.928에서 재인용.

105) 김응조(1994), 천도교 여성회 70년사, p.42. 정영엽(2001), 상게논문에서 재인용, p.56.

아동존중사상을 알아 볼 수 있다.

> 갓난아기의 어리고 어림이여 말은 못해도 父母를 알고 있으니
> 어찌 아는 것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 세상 사람이여
> 어찌 아는 것이 없겠는가.[106]

水雲은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라도 어른과 같이 아는 것이 있으니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水雲의 人乃天 思想과 兒童尊重思想은 海月에 와서는 事人如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지식전달을 위한 암기암송방법을 지양한다. 그것은 崔濟愚의 師弟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지식을 중심으로 형식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삶의 동반자로서 형성된다.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기에 스승은 권위적 위치에 놓이고, 반면에 이를 받기에 제자는 다만 스승에 따르는 외형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는 보다 깊은 내면적인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107] 그것은 비록 무지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한울님을 모신다는 그의 人間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자, 즉 아동을 한 인간으로 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우는 아동이 교육의 객체에서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으로서 敎育의 民主化, 人間化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兒童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동이 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水雲을 현대교육의 선각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108] 海月의 兒童尊重思想은 水雲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海月은 東學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구체화 하였다. 兒童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귀중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행한 법설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평등하다'는 한울적 平等主義에 입각한 것이다. 이 사상은 胎兒의 존중에까지 이어지는데, 胞胎中의 생명을 존엄시하여 侍天主의 가장 근원적 형태를 胎兒時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海月이 東學敎人들이 포태시 지켜야 할 계율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胎敎를 가르친 다음의 內則은 海月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

106) 東經大全, 不然期然, 天道敎中央摠部.

107)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1987), 「교육사상가 평전1」, 교학연구사, p.201.

108) 김점권(1997), "동학의 아동존중사상과 교육",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p.39.

포태하거든 육종을 먹지 말며, 해어도 먹지 말며, 논에 우렁이도 먹지 말며, 지렁이 가재도 먹지 말라. 물론 아무 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의 기운을 따라 사람이 나서 모질고 악 하나니라. 일삭이 되거든 기운 자리에 앉지 말며, 잘 때에는 바로 자고 모로 눕지 말며, 김치와 채소와 떡이라도 기울게 썰어 먹지 말며, 위태로운데 다니지 말며, 지름길로 다니지 말며, 남의 말 하지 말며, 무거운 것을 들지 말며, 너무 뜨거운 것도 먹지 말며, 경 한 것이라도 중 한 듯이 들며, 방아 찧을 때에 어렵거든 찧지 말며, 너무 뜨거운 것도 먹지 말며, 너무 찬 것도 먹지 말며, 기대어 앉지 말며, 비켜서지 말며, 남의 눈을 속이지 말라. 이같이 아니하면 사람이 나서 요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횡사도하고 병신도 되나니. 이 여러 경계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이같이 십삭을 공경하고 믿어하고 조심하오면 사람이 나서 체도도 바르고 총명도 하고 기국과 재기가 사람에 지닐 것이니 부디 그리 알고 각별 조심 하옵소서. 이대로만 시행하면 문왕 같은 성인과 공자 같은 성인을 낳을 것이니 그리 알고 수도를 지성으로 하옵소서. 내칙과 내수도문은 침상가에 던져두지 말고 조용하고 한가한 때를 타서 수도하는 부인에게 외어들어 뼈에 새기고 마음에 쓰게 하옵소서. 천지조화가 이 내칙과 내수도문 두 편에 들었으니 부디 범연하게 보지 말고 이대로만 밟아 봉행 하옵소서.

內則의 서두에는 일체의 육식을 금하라고 그르치고 있다. 육지에서 나는 고기 종류, 바다에서 나는 생선 종류, 강이나 냇가에서 자라는 우렁이나 가재도 먹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아무고기라도 먹으면 그 고기기운을 타 사람이 나면 모질고 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육식을 주로하게 된다면 동물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되어 사람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완고하고,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생활적 변화 없이는 인격적 변혁을 도모하는 생활혁명이 완성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동학적 가치체계의 시작은 이처럼 태아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109] 海月은 그의 법설에서 태아로부터 幼兒·兒童을 人格的인 존재자로서 한울님을 대하듯 소중하게 길러야 한다는 兒童觀은 한국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파격적인 선언이었다.[110] 婦人이 胎兒를 갖는 것은 그저 신체의 부분적인 변화나 부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인을 막론하고 새로운 생명이 한울님을 내 몸속에 맞이하는 겸허한 자세로 포태된 생명의 양육에 임해야 한다는 아동존중의 근본정신을 內則에 담고 있다. 內則의 실천항목에

109) 오문환(1996),「사람이 하늘이다」, 솔 출판사, p.134.

110) 이원호(1983), 전게논문, p.256.

는 胞胎時 바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行動擧止, 留念事項, 攝生時 留意事項 등을 나타내고 있다. 東學은 이러한 임신기간 중 생명의 존엄성, 고귀성을 전래적으로 내려온 태교의 가르침에 부합시켜 더욱 부각시키고 이를 부인들에게 꼭 준수토록 하였다. 사람이 한울을 모신다는 것은 어머니가 태아를 속에 모신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은 인간이 한울을 태아처럼 모신다는 뜻과 인간이 태아를 한울처럼 모신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의 뜻은 海月이 지적한 산모가 태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부인이 태아를 갖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부분적인 변화나 부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울을 모시듯이 어머니가 태아라는 한울을 모시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 인격의 인간은 태아에서부터 형성된다는 지극히 현대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으며 兒童尊重敎育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모태에서의 생명의 성장은 바로 人間敎育의 出發이라고 보아 우리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胎敎라는 준칙이 임신한 부인에 대해 내려져 왔다. 海月은 또한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조차도 천주의 뜻을 상하는 것이니 심히 삼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현재에 와서도 교육을 위해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인정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어린이를 존중하는 사상이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도가 부인은 경솔히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을 상하게
> 하는 것이니라.…… 경솔히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니
> 일체 아이를 때리지 말라.[111]

위 글에 나타난 것처럼 전통적 유교교육에서 대부분의 유아, 아동은 어른들의 종속물로 보거나 노리개 감으로 생각했다.[112] 그래서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되었다.[113] 그러나 東學에서는 어린이를 인격체로서 대우할 뿐만 아니라 한울님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어린이 인격문제에 대하여 이보다 혁명적인 시각이 또 있는가? 東學의 兒童尊重思想은 동서를 초월하여 兒童을 최고의 인격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양이 아동을 보호하고

111)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敎中央摠部.

112) 손인수(1989), 전게서, p.114.

113) 김정환(1984),「교육학개론」, 박영사, p.4.

귀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지만 東學처럼 아동을 한울님을 대하듯 하거나 한울님과 같은 지위에 두지는 않는다. 즉 한울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길러야 한다는 侍天主 思想은 최고의 兒童尊重思想이라 할 것이다. 海月은 평소에도 어린이들과 맞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義, 龜, 松 三庵 앞에서는 "이담에 너희는 앉아서 절을 받더라도 나는 지금 앉아서는 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후일 天道敎가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을 주도하게 된 사상적 연원은 海月神師의 이러한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운동의 진정한 창시자는 海月이었다. 우리가 흔히 루소를 敎育思想家 중 兒童을 최초로 발견한 교육자라고 한다면 海月은 兒童의 내면적 인격을 끄집어낸 교육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114] 이처럼 東學은 兒童도 어른의 부속물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보았다. 이러한 兒童觀은 아동을 존중하며 가르치는 東學의 兒童尊重 敎育思想의 바탕이 되었고, 이 사상이 이어져 天道敎 시기에는 소파 방정환, 김기전 등의 아동교육에 의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兒童中心的인 교육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115] 서양에서는 아동 중심주의, 아동중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進步的 敎育改革論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주장되었다.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아동중심 교육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루소에서부터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소박한 아동중심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듀이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조건'으로 이해되는 교육관이 그것이다.[116] 소박한 아동중심 교육사상은 학습이나 그에 나타나는 지적 성장보다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兒童自體를 더 중시하려는 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교육적 관심이 권위적 내용에서 兒童의 본성에로 옮겨져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東學의 아동교육사상은 서양의 소박한 아동중심 교육사상과 정신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루소의 「에밀」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같은 사상과 매우 같음을 알 수 있다. 「에밀」의 본문 모두에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두가 선한 것이나 인간의 손에 들어 와서는 그것이 전부 예외 없이 악한 것으로 되어 간다."는 문장은 인간의 선성을 선언하고, 기독교의 기본교의로서의 原罪思想에 대항하는 것이었으나, 그는 단순히 교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교회의 교육지배, 더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지배 기구를 무효로 하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악으로

114) 송준석(1993), 전게논문, p.65.

115) 김점권(1997), 전게논문, p.44-45.

116) 이돈희(1992) 「교육철학개론」, 교육과학사, p.133.

파악된 인간의 自然性의 矯正, 즉 때려 고치는 과정이야말로 교육이라는 敎育觀에 대하여 아동은 본래 善한 것으로 그 선성을 지키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하면서 악한 것은 성인의 기성 문화이므로 兒童은 오히려 그것으로 악에 물들어 간다고 보았다. 그래서 루소는 兒童은 짐승도, 인간의 성인이어도 안 되며 오직 아동은 아동이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東學의 人乃天 思想은 義菴에 이르러 천도교가 앞장서서 일으킨 우리나라 소년해방운동의 정신적 배경이 되고 또한 少波 方定煥의 兒童中心主義思想의 출발점이 되었다. 소파는 兒童의 성장단계에 적합하고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화, 동극, 구연 등과 시청각을 동원한 교육방법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인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중심의 교육방법을 택하여 아동은 어른의 종속변인이 아니라 獨立變人으로서 兒童中心의 교육을 전개했다.[117] 東學의 兒童尊重思想은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으로 아동을 하나의 어른의 종속물이나 피조물로 여기던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사상이었다.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라 말한 것은 아동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대우하라는 사상이다. 결국 아동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는 人乃天 思想과 연결되는 것으로 요즘 현시대에 부모들 아동의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수긍하는 것도 水雲의 兒童尊重思想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道德主義 敎育思想

道德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할 길이다. 사람이 행해야 할 길(規範)을 깨치고 행함으로써 선천적인 德의 회복과 후천적인 人格이 형성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道와 행위와 德과 인격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道를 잘 행하면 인격이 잘 형성되고 인격이 잘 형성되면 道를 잘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118] 동양의 道德思想은 道와 德이 분리된 개념으로서 道는 절대 초월의 하늘의 이치이고, 德은 도가 구체적으로 現像化 되어 나타낸다고 보았다. 水雲의 동학사상도 같은 맥락에 서 있으며 道는 천도로서 절대 초월적인 자리이

117) 이용희(1991), “동학의 인본주의교육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61.

118) 최무석(1988), “동학의 도덕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p.70-71.

고, 도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실천방식인 德을 유교의 '仁義禮智' 대신에 '수심정기'로 다시 정한바, 이는 기존의 형식과 행위 대신에 마음과 기를 중시하는 본질적인 도덕수행이 강조되었다 하겠다.[119] 道德主義 敎育思想에는 수심정기의 誠·敬·信을 통해 君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東學은 '수심정기'라는 인간의 내면적 규범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東學은 인간이 성·경·신이라는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통해 '수심정기'라는 인간의 내면적 규범을 실현함으로써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성·경·신이란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통해 한울님을 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천의에 합치된 인간,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심정기는 도덕적 인격완성을 위한 수양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자율적인 교육방법이라는데 그 가치가 있다. 자기 마음을 수양한다는 보면, 수심정기는 오랜 수학기간을 필요로 하는 유학적 학습과정이 필요 없다는 데서 일반 민중들도 자신의 마음만 바르게 지켜나가면 누구나 군자의 인격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데에 水雲의 교육방법은 보편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교육적 가치는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수심정기의 방법은 道德歌에서 잘 나타나 있으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수심정기(守心正氣) 하여내어 인의예지(仁義禮智) 지켜두고
군자(君子)말씀 본받아서 성경이자(誠敬二字) 지켜내어
선왕고례(先王古禮) 잃잖으니 그 어찌 혐의(嫌疑)되며
세간오륜(世間五倫) 밝은 법은 인성지강(人性之綱) 이로세
잃지않자 맹서(盟誓)하니 그 어지 흠이 될고
성인(聖人)들의 가르침이 이불청음성(耳不聽淫聲)하고
목불시악색(目不視惡色)이라. 어질다 제군(諸君)들은
이런 말씀 본을 받아 아니 일자 맹서(盟誓)해서
일심(一心)으로 지켜내면 도성덕립(道成德立) 되려니와.[120]

번복지심(飜覆之心)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역리자(逆理者)요,
물욕교폐(物慾交弊)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卑陋者)요.
헛말로 유인(誘人)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惑世者)요,
안으로 불량(不良)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사천자(欺天者)라.[121]

119) 정순남(1998), "동학의 한울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p.57.
120) 龍潭遺辭 道德歌, 天道敎中央摠部.

三綱五倫을 골자로 하는 孔子의 도덕정신을 되살리자는 이 구절은 道成德立이 물욕의 충족이나 새 나라의 고관이 된다든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심성을 지키는 守心正氣에 있음을 말하는 道德主義 思想의 표현이다. 당시의 사회의 무질서와 인간의 심성타락을 경고하는 한편 인륜도덕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다. 東學思想이 사회의 부도덕을 미워하고 도덕윤리의 새 세상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으로서 교화적 의미가 강한 구절이 있다. 東學思想의 사회적 재건 사상은 社會開闢思想으로 발전되고, 이 사상은 人乃天과 함께 의 2대 본질 사상이 된다. 조선말기 사회가 혼돈과 부패가 극에 달해 있다고 보고 이것을 개신, 개조하자는 사상이 開闢思想이다. 開闢思想은 우선 현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말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잘못되고 道德이 땅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지만 社會開闢의 희망은 있다고 새 도덕사회의 출현을 기대하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라 무슨 팔자(八字) 고진감래(苦盡甘來) 없을 소냐.
흥진비례(興盡悲來) 무섭더라 한탄(恨歎) 말고 지내보세. 122)

우리라 무슨 팔자(八字) 그다지 기험(崎險)할꼬
귀(富)하고 귀(貴)한 사람 이전시절 빈천(貧賤)이요
빈(貧)하고 천(賤)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富貴)로세.123)

천운(天運)이 울렸으니 근심 말고 들어가서
윤회시운(輪回時運) 구경 하소 십이제국(十二帝國) 괴질운수(怪疾運數)
다시 개벽(開闢) 아닐런가 태평성세(太平聖世) 다시정해
보국안민(國泰民安)할 것이나 개탄지심(慨歎之心) 두지 말고
차차 지내서라.124)

라고 하여 고통, 번뇌, 빈천을 잘 참고 守心正氣, 道成德立하여 참된 사회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부귀와 희락으로 변해 태평성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121) 龍潭遺詞, 道德歌, 天道敎中央摠部.

122)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摠部.

123) 龍潭遺詞, 敎訓歌, 天道敎中央摠部.

124) 龍潭遺詞, 夢中老少問答歌, 天道敎中央摠部.

잘 믿고 따르도록 가르쳤다. 水雲의 道成德立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의 살펴보면.

> 열세자 지극(至極)하면 만권시서(萬卷詩書) 무엇하며
> 심학(心學)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不忘其意)하였어라.[125]
>
> 십년(十年)을 공부(工夫)해서 도성덕립(道成立德) 되게 되면
> 속성(速成)이라 하지마는 무극(無極)한 이내 도(道)는
> 삼년불성(三年不成) 되게 되면 그 아니 헛말인가.[126]

강제적, 타율적, 비인격적인 수양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 인격적인 수양을 바탕으로 한 심신 우려 나온 진실한 道成德立을 강조하였다. 즉, 개개인 주체에게 부여된 선험적 덕성의 존재와 그것을 실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인 心을 자각하고 지켜내려는 것이며, 동시에 도덕인격 실현의 거점을 내면에 설정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옛 성인의 '仁義禮智'의 가르침과 나란히 내세운 그의 '守心正氣'의 수양방법이다.[127] 守心正氣란 마음을 지키고 氣運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守心이란 東學思想의 중심 이상인 侍天主, 즉 하느님을 모셨다는 확신, 한울님을 잘 모셔서 천의를 터득하는 것으로, 참다운 자아에 대한 信念을 굳건히 保存하여 자신의 똑같은 마음가짐을 뜻하는 것이'守心'이라면 천의와 합치된 인간 즉, 無爲而化된 인간을 '正氣'로 표현하며, 正氣는 자기가 지닌 올바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확고한 행동을 말한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먼저 부모의 뜻을 잘 받들고 모셔야 될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양심을 지키고 본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守心正氣의 실천적 자세는 빼놓을 수 없는 절대요건이다. 이러한 守心正氣의 교육방법은 誠·敬·信의 실천윤리를 들고 있는데, 이 3가지 실천윤리는 한울님을 모시는 방법이다. 侍天主는 한울님을 자기가 모시고 있다는 데서 한울님에 대한 공경이오, 천주에 대한 '敬畏之心'을 가진 상태[128]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울님을 지극히 공경하려는 마음을 가진 상태가 곧 誠이오, 이것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5) 龍潭遺詞, 敎訓歌, 天道敎中央摠部.

126) 龍潭遺詞, 道修詞, 天道敎中央摠部.

127) 박경환(2003), 동학과 유학사상, 동학학회 발표논문, p.8.

128) 신일철(1980), 전게서, p.89.

이 곧 사람의 도리인 것이다.[129] 誠이란 참됨의 표현으로 부정이나 불의나 불신·무례·사악 등이 배제된 순일의 경지이자, 소박과 순진과 정직과 실질과 강직과 실천궁행의 경지인 것이다.[130] 이러한 참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세속적인 온갖 욕정과 잡념과 분노와 마음의 동요를 참고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참음으로 참됨이 실현되는 것이며 참된 인간의 가치, 인간다운 인간성이 실현된다는 가치이다. 따라서 水雲은 "마음으로 굳게 믿어서 誠이 된다."[131]라고 말하고 있으니 誠은 한울님을 지극히 받드는 마음 자세인 고로 이것이 인간관계에 있어 성실하고 진실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또한 誠은 精誠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道德의 主體가 되는 德目으로 인간이 나아갈 자세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精誠을 다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였다. 일찍이 옛글에 聖子는 '五常之本二仁義禮智信'이라했고 또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요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道라고 하였다. 하늘의 성실성은 크게는 우주공간, 천체에서부터 작게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삼라만상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궤도를 달리고 어김없이 제자리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하늘의 성실성을 본받아 참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水雲은 말하기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정성이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나 헤아리라.
> 정성을 이루어지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이것은 스스로 알면서 게으른 것이니라.[132]

고 하였다. 참된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것이 精誠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내 마음이 어떤 사물에 집착되면 그것은 마음을 잃은 증거이다. 精誠이란 순진한 참된 마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며 꾸준히 한결같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마음을 잃지 아니함은 마음의 집중과 통일이다. 마음을 한곳으로 통일 집중 할 때 정성이 이루어진다. 흔히 사람들은 마음을 잃는 경우가 많다. 주색잡기에 잃고 부귀영화에 잃고 명예와 허영에 마음을 잃는다. 이런 사람은 精誠있는

129) 中庸, 誠論. "誠之者 人之道"

130) 도광순(1981), "한국의 전통적 교육가치관", 「현대와 종교 제4집」, 1981. p.5.

131) 東經大全, 修德文, 天道敎中央摠部 "心信爲誠 以信爲幻."

132) 東經大全, 前八節 後八節, 天道敎中央摠部. "不知誠之所致 數吾心之不失 不知誠之所致 是自知而自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정성 있는 사람은 참된 어진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성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한편 정성 誠자는 말씀 (言)과 이룰 (誠)자의 合字이다. 글자 뜻대로 말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뜻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끈기 있는 정신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우선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精誠을 가져야 한다. 바르지 못한 목적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따라서 精誠은 순일하고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바른 뜻과 바른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하고 참고 이겨냄으로써 끝까지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뜻을 관철하는 하늘에 사무친 성실의 자세인 교육사상이다[133]

한울님을 받드는 행위가 敬이다. 敬은 참됨의 표현이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어울리는 도덕인 것이다. 사람이란 서로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서 번영과 창조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이란 소유와 집착을 의미하며, 三綱五倫은 인위적인 속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를 공경이라는 자세로 대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敬이란 정신은 내가 나를 대할 때나 남을 대할 때, 또 우주만물을 대할 때 그 주체성과 사명을 존중하고 높여가면서 서로 도와가며 어울려 발전·향상하여 나아가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敬思想은 海月時代에 와서 더욱 발전하여 敬天·敬人·敬物思想의 三敬思想으로 발전함을 볼 수 있다. 東學의 三敬思想은 天地人의 조화로 天人合一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유가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侍天主와 관련하여 모든 만물은 한울님의 氣化로서 생성하고 발전하고 멸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이 모든 만물에는 侍天主의 마음이 들어 있는지라 이른바 한울님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천·경인·경물해야 한다는 것이 東學의 三敬사상이다.[134] 이들에 대해 아래에서 고찰해 보겠다. 敬天이란 한울을 恭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천지대자연과 우주 전체를 공경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人乃天의 종지에서 敬天이란 우주전체의 天이 아니라 侍天主를 모신 인간 자신이라 하였다. 海月은 敬天에 대해 이르기를

> 사람은 경천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은 선사와 창도하신 도법이라 하고 경천은 허공을 향해서 한울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는 곧 경

133) 오익제(1984)외 6인, 전게서, pp.268-269.

134) 남욱현(1995), “동학사상의 윤리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p.49.

천의 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니 오심불경이 곧 천지불감이라 함은 이것을 이름이라[135]

하였다. 그러면 왜 敬天을 나의 마음을 공경함이라 하였는가? 이는 해월의 "心則天 天則心이니 心外無天 天外無心"[136]이라고 한데서 근거한다. 그리고 해월은 "사람은 敬天함으로써 자기의 영생을 알게 될 것이요 人吾同胞와 物吾同胞의 전적이치를 깨달을 것이요, 敬天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敬天은 모든 진리의 중추를 파지함이라" 하였다.[137] 敬人은 侍天主의 사상에 근거한 사인여천·인내천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존중의 극치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데 입각하여 한울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공경하여 인간의 자유를 구속함이 없고 빈부·귀천·지위·계층·남녀·노소 차별 없이 인간자체를 존중하라는 윤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 점이 봉건 계급 윤리인 유교와 다른 점일 것이다. 그리고 원시 유교에서는 한울님을 섬기듯이 어버이를 섬기고, 어버이를 섬기듯이 한울님을 섬기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事人如天이라는 말은 유가에서 볼 수 없는 평등 윤리관이라 볼 수 있다. 海月이 이르기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경천만 있고 경인이 없으면 이는 농사의 이치는 알되
실지로 종자를 땅에 뿌리지 않는 행위와 같으니라.[138]

라 하여 사람 섬기를 한울과 같이 한 후에야 처음으로 도를 바르게 실행하는 것이라 한다. 이것은 인간 개개인의 모든 차별을 떠나 시천주 인간의 신적 존엄성에 기인한 事人如天의 실천인 것이다.[139] 敬物은 사물을 恭敬하는 것으로 과거 도덕에서는 물건을 천시하였다. 그렇지만 동학의 시천주사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식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侍天主자라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을 통해서 가르쳤다. 따라서 海月은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도덕의 극치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135) 天道敎創建史, 海月神師法說, 天道敎中央摠部.

136) 天道敎創建史, 상게서.

137) 최무석(1988), 전게논문, pp.70-71.

138) 海月神師法說, 三敬, 天道敎中央摠部.

139) 남욱현(1995), 전게논문, p.51.

사물을 공경함에 이르러야 천·기화의 덕에 합일될 수 있다.[140]

라고 하여 자연의 만물을 한울님을 모신 지극한 생명체로 본 것은 주목할 만한 사상이라고 생각된다.[141] 한울님이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에 따라 만물의 생성을 도와주는 것은 이른바 인간이 천지의 화육을 돕고 천지와 힘을 합하여 궁극적인 일체가 될 수 있다는 侍天主의 적극적인 실천사상이 동학의 경물사상인 것이다. 결국 東學의 敬物思想은 자연만물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순한 대상이 아닌 공생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전 인류의 지구 환경보호정신과 일맥상통함을 볼 때 東學의 敬物思想은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숭고한 삶의 실천윤리로 그 위대한 가치와 의의를 일깨워 주고 있다.[142]

한울님을 믿는 마음이 곧 信이다. 믿음이란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된다. 인간의 서로 간의 약속과 신의는 자기 한 몸만을 위할 때 파괴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안과 위기는 실로 불신이라는 병적 풍조에서 오는 것이다. 믿음의 교육적 가치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를 굳건하게 결속시켜 줌으로써 서로 간의 협동과 이해, 관용 등을 지니게 된다는 데 있다. 水雲은 '이 3가지 실천윤리를 잘 지켜내면 無極大道를 얻고 군자가 되어 道成德立을 할 수 있다.'[143]라고 말하고 있다. 이 우주는 어떤 일관된 원리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성립·발전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땅이 꺼지지 않고 춘하추동이라는 계절에 맞추어 농사짓고 거두어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우주 속에 감추어진 이러한 약속의 원리를 찾아내서 그 약속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발명도 하고 학문도 만들고 신앙도 쌓아 올리고 문명도 개발해 온 것이다. 그런데 우주 자연의 약속은 어느 때 어디서나 거짓이 없지만 인간 상호간의 약속과 신의는 자기 한 몸을 위하여 파괴하거나 변질시키기 때문에 사회질서는 문란하여지고 상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水雲이 말하기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40) 天道敎創建史, 海月神師法說, 天道敎中央摠部.

141) 최무석(1988), 전게논문, p.83.

142) 남욱현(1995), 상게논문, p.53.

143) 龍潭遺詞, 道修歌, 天道敎中央摠部.

대저 세상 인도 중에 믿을 신자 주장일세.[144]

라고 하여 믿음의 회복을 가장 크게 역설하였으나 '오늘날의 불안과 위기는 실로 믿음을 잃는 까닭이다.' 라고 하여 믿음의 뜻을 가장 크게 역설하였으니, 오늘날의 불안과 위기는 실로 불신이라는 병적인 풍조에서 오는 것을 다시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145] 이상과 같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誠이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眞實한 마음이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誠實한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敬이란 誠을 기초로 하여 外面的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의로서 공경,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하며, 信은 믿음, 확신, 신의, 신념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내면적·외면적인 결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신은 서로 연관되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誠·敬이 진실하면 信은 신의로 나타날 것이며, 이와 반대로 誠·敬이 허위면 결국 信은 위선으로 판명될 것이다. 요즘의 시대는 윤리도덕이 타락된 말세의 시대라 한다. 자식이 부모를 해치고 신하가 임금을 버리는 하극상의 일이 비일비재하며 스승과 제자사이에 진정한 사제간의 학문의 도가 끊어지고 있다.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은 현 시기에 올바른 부모, 군신, 사제간의 윤리도덕, 예의범절을 성·경·신을 바탕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6. 民族主義 敎育思想

東學은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1860년에 개화·위정과 함께 전후시기를 통하여 형성된 민족 구원의 종교요 사상적 인식체계였다. 그래서 民族主義[146] 요소가 많았다. 근대민족주의의 과제를 반외세·반봉건이라 하였을 때 衛正斥邪論은 반봉건을 등한시 한 체 반외세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민족주의였고, 開化思想은 반봉건에 중시하여 반외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 이에 비해 東學은 반

144) 龍潭遺詞, 道修歌, 天道敎中央摠部.

145) 오익제(1984)외 6인, 전게서, pp.269-271.

146) 김우태(1984), "한국민족주의연구", 정치학 박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90.
김우태는 한국민족주의 1단계 2기로 구분한 바,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한국민족주의 1단계를 1기 (1860년대~1870년대)와 2기(1880년대~1890년대)로 구별한다. 1기는 척사파와 동도서기파에 의한 민족보전이라는 보수적 민족주의로, 2기를 개화파와 동학파에 의한 반침략·반봉건을 투쟁목표로 내건 진보적 민족주의로 본다.

봉건과 반외세라는 근대민족주의 과제를 모두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완전한 민족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147] 東學의 민족주의적 요소로는 輔國安民思想, 開闢思想, 廣濟蒼生 등이 있다. 그리고 東學이란 말 자체가 서학에 대립하는 민족주의적인 개념에서 나온 말이다. 민족[148]에는 역사와 더불어 자라온 정신적·문화적 맥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민족정신이 있고 민족정기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민족의 일체감을 흔히 民族主義라 한다. 후진국의 신흥사상의 공통점은 외세의 침투에 의한 국가적 위기의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民族主義를 표방하는 것으로 東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우리가 의를 들어 차에 지함은 그 본의가 단단타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우에다 두자 함이라. 안으로는 빈학한 관리의 머리를 빗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다.[149]

> 요순성세 다시 와서 국태민안 되지마는,
> 기험하다 아국운수 기험하다
> 개 같은 왜적 놈아 너의 신명 돌아보라
> ……
> 개 같은 왜적 놈아 전세 임진 왔다 가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47) 강돈구(1992),「한국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p.121.

148) 우선 민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Nation(민족)이란 어원은 라틴어인 ratio(자연)에서 유래되어 Natura(자연)과 함께 nasu(출생)라는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연과 함께 출생한 자연적인 동족 공동체라는 것이다. 여기에 언어나 생활양식 등 일차적인 요소로 들 수 있다. 민족을 정의한 내용을 보면 스탈린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에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형성의 기초로서 발생한 인간의 역사적으로 구축된 공고한 공동체이다. 이와 같이 민족이란 모든 역사적 이상과 마찬가지로 법과 법칙이 종속되어 있으며, 그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시작과 더불어 종말이 있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상술한 기준들 중에서도 어느 하나만으로 민족을 정의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들 기준의 어느 하나라도 결한다면 민족이 될 수 없다." 스탈린은 민족의 설립요건을 언어, 지역, 경제생활, 심리상태라는 4가지로 보고, 이것을 동가치적으로 간주하여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민족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항녕(1989)은 '동일이론과 사상'에 민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간이 만든 사회 가운데 가장 연대가 강한 것은 민족이다. 민족은 혈연과 언어와 문자와 사고와 의식주, 생활풍습 등을 같이하는 역사적 운명공동체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생활풍습을 지키고 같은 운명을 따르는 민족생활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이다." 라 하여 민족은 역사적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로 가장 편하고 자연스런 생활양식이라 정의하였다.

149) 오지영, 전게서, p.112.

……

이 역시 분노로다. 개 같은 왜적 놈을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의 원수 갚아보세.
중수한 한의 비각 헐고 나니 초개같고
붓고 나니 간산 일세

……

이 가사 외어내서 춘삼월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150]

水雲은 日本과 淸나라 및 西歐勢力의 침략을 경계하였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경계의 말을 세 군데에 걸쳐서 하고 있다.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청·서구에 대한 민족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東學의 공동의 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斥洋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제국주의가 이방지대에 침투할 경우, 백인의 기독교는 그가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든 거행하지 않던 간에 토착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마련이다.[151] 서학의 전래로 그 이질적인 요소에 대하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저 서학을 믿는 사람들은 말에 순서가 없고 글에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으며 한울님을 바르게 위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잘되기를 꾀할 뿐이니 그들의 몸에는 한울님이 도와주시는 기운이 있지 않고 학문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다. 그리하여 형식은 있으나 자취가 없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한울님께 비는 주문이 없으니 학문은 허무한데 가깝고 가르침은 한울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다름이 없다고 하겠는가.[152]

라고 하여 서양인에 관한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였다. 한국인으로 하여금 서학에 강한 저항감을 느끼게 한 것은 조상숭배 배격에 관한 야만성을 비난하였다. 즉

---

150)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摠部. 한의는 한이를 말하며 곧 청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의'를 汗夷'로 보는데 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한의비각'도 병자호란의 민족적 치욕의 상징이었던 淸나라 전승기념비를 뜻하는 삼전도한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흥수, 「한국정치사 강의안」, 미 간행 논문, p.42.

151) R. Emerson,(1962), From Empire to nation, Beacon Press, Boston, p.94.

152) 東經大典,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처음부터 회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東學은 서구의 이질적인 문명으로부터 전통문화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고유관념에서 반외세적인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조선사회의 외연적 위협이 극대화되고 무질서한 사회적·시대적 환경 속에서 위기상황 극복으로서 東學이 그 창도하게 된 것도 이러한 외침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斥華에 관한 문제이다. 동남아에 있어서 약소국가의 民族主義는 반드시 서구식민지주의의 침략행위에 자극을 받아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엄습해 온 淸國 (또는 漢民族)의 종주국적 오만에 대하여 굴욕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한민족에 있어서는 청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은연중의 한 소망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153] 東學에서는

> 대보단(大報壇)[154]에 맹세하고 한(漢)의 원수(怨讐) 갚아보세
> 중수(重修)한 한(漢)의 비각(碑閣) 헐고 나니 초개(草芥) 같고
> 붓고 나니 박산(撲散)일세 이런 걱정 모르고서
> 요악(妖惡)한 세상(世上) 사람 눌로 대해 이말 하노
> 우리 선조(先祖) 험천(險川)[155] 땅에 공덕비(功德碑)를 높이 세워
> 만고유전(萬古遺傳) 하여보세.[1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韓民族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길러 청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갖는 민족이 되어 주체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자는 자는 것으로 배청을 표명하고 있으며, 중화적 전통을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東學은 세계관에서도

> 나는 동방에서 태어나 동방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인즉 동학이다. 하물며 땅이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 있는데 서양이 어찌 동양이 될 것이며 동양을 어찌 서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157]

---

153) 신복룡(1980), 전게서, p.258.

154) 창덕궁 옆에 있었음. 明나라의 大祖, 神宗, 毅宗을 제사지내는 祠宇. 임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明나라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지었음.

155) 지명, 지금의 경기도 용인지방, 水雲 선생님의 7대조 최진립 장군이 병자호란때 이곳에서 전사하였음.

156)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摠部.

라고 하여 화이의식 즉 세계를 華와 夷로 구별하는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였다. 이상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민족주의 정수는 중화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사적 과제가 東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이다.[158]

셋째, 斥倭에 관한 문제이다. 당시의 日本은 막부체제로부터 절대주의 즉 명치유신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명치유신은 외적 조건으로 조숙하게 실현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미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의 압력에 종속하면서 日本의 근대화는 행하여졌다. 봉건체제에서 절대주의에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모순을 외부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에서 대외적인 면에서 위기의식을 조성하는 무리가 등장하면서 이들에 의하여 江華島事件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그 동안 누적된 반일감정을 분출하는 점화제가 되었다. 반일감정에 관계된 水雲의 民族主義的 대외사상은 日本에 대하여 가장 격렬한 어조로 적개심을 표현하였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 같은 왜적(倭賊) 놈이 전세임진(前世壬辰) 왔다 가서
> 술 싼 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 세상(世上) 사람 뉘가 알 꼬 그 역시(亦是) 원수(怨讐)로다
> ……
> 내가 또한 신선(神仙)되어 비상천(飛上天) 한다 해도
> 개 같은 왜적(倭賊) 놈을 한울님께 조화(造化) 받아
> 일야(一夜)에 멸(滅)하고서 전지무궁(傳之無窮) 하여 놓고[159]

위 가사에 '개 같은 왜적 놈'이라고 욕하며 임진란 당시의 참화에서 연유하는 적개심을 말하고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하여 일본으로부터 우리 민족수호의 다짐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한인들의 대일 저항은 양이에 대한 반감과 비록 그들이 문명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동이족이라고 생각했던 日本이 양화에 빠지는데 대한 일종의 유색인종으로서의 배신감 같은 것이 그

157) 東經大典, 論學文. 天道敎中央摠部.

158) 신복룡(1980), 전게서, p.259.

159) 龍潭遺詞, 安心歌. 天道敎中央摠部.

밑에 잠재의식적으로 깔려 있었다.[160] 위 구절에서 살펴본 東學思想에 대한 民族主義的 要素는 외세의 침입에 대한 자체 보호적 항쟁의 색채가 짙다. 東學의 민족주의 발생원인은 주자학적 명분론과 사대사상에 대한 반대가 반청사상에 편승하여 실학사상을 거침으로써 뚜렷한 民族主義의 主張을 배태하게 한 내적요인이 동학 성립 당시 성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서양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東學으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기치를 들게 한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외세의 계속된 위협과 국내의 괴질발생, 농민의 참상 등 水雲의 東學 창건의 계기가 외세에 대항한 民族自主精神에서 발생하였다. 이상으로 東學思想을 종합해 보면 東學의 기본정신은 人間本位의 思想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모든 사상의 정수가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을 중시하는 사상은 먼 옛날부터 한울님을 믿어온 우리의 전통적인 신념이 창의적인 모습으로 발전된 것임에 틀림없다. 東學은 신앙상의 이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人間의 尊嚴性을 지키는 것은 직접 현시에 참여하여 새로운 현실을 개척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161] 그러므로 민주적인 사회사상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그것은 民族的인 思想이기도 하거니와 민중적인 사상이기도 하다. 東學의 民族主義的 요소는 輔國安民사상에 많이 나타나 있다. 東學 思想에는 輔國安民하여 布德天下하고 廣濟蒼生함으로써 地上天國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이 정신이 東學革命을 일으켰고, 3·1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의 가혹한 압박 속에서 민족의 독립과 개화를 위한 문화운동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0년대 東學에 의한 민족개명을 위한 開闢誌 발간과 출판문화운동, 어린이지를 통한 어린이 운동, 농민계몽운동, 독립운동 등도 결국은 輔國安民 하려는 民族主義 敎育思想에서 표출된 것이다.[162] 결국 東學의 諸經典에서 찾을 수 있는 民族主義的 주체요소는 준비 없는 조선사회에 갈등과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킨 서학에서 우리를 잃지 말고 역사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日本에 대한 경계심을 깨우쳐서 輔國安民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윤리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東學의 民族主義는 주자학적 폐쇄주의와는 구별되는 近代 民族主義的 성격을 띠고 있다. 즉 東學의 인도적, 평등적 본질사상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근대적 民族主義는 주체적 개화민족주의였다.[163] 한민족은 民族主體性이 부족하여 결국 한일합방과 조국분단이라는 현

160) 신복룡(1980), 전게서, p.255.

161) 손인수(1990),「한국교육사상가평전Ⅱ」, 문음사, p.32.

162) 이헌동(1993), 전게논문, p.62.

실적인 아픔을 겪게 되었다. 한민족 스스로 자립심과 독립심이 없으면 결국은 도태하고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민족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주변국가가 감히 과소평가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東學의 民族主義 敎育思想은 요즘 현 시대적인 흐름에 잘 부합하며 젊은 세대가 반드시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다.

Ⅳ. 東學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앞의 고찰을 통하여 東學의 敎育思想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부합되며 민중의식을 계발하고 민중의 생활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人本主義, 平等主義, 女性尊重, 兒童尊重, 道德主義, 民族主義 敎育思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東學의 敎育思想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은 '교육관은 때로는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때로는 종교적 신앙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는 근거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이러한 교육관은 일상인의 소박함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164]는 근거에 의하여 가능하며, 우주관, 인간관, 사회관등의 가치관에 의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東學의 교육사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東學敎育思想의 기초가 되는 人間觀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人本主義, 平等主義, 女性尊重, 兒童尊重, 道德主義, 民族主義 敎育思想을 고찰하였다. 東學思想이 현대교육에 주는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교육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은 교육 독자의 영역 속에서만 파악되어질 수는 없다.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타 사회부문과 유기적 관계아래 전개된다. 敎育을 추상적 개념 혹은 교육 부문 내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려는 태도는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간에 교육현상에 엄연히 반영되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의 모순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을 은폐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165] 東學의 敎育思想은 인간의 내재적 가능성인 '키움'을 사상적 기저

163) 이응렬(2000), "동학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pp.31-36.
164) 이돈희(1992), 전게서, pp.15~16.

로 삼아 민중의 자각을 이루고자 한 점에서 커다란 교육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東學은 소외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민중의 삶의 주체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들이 지닌 인간적 가능성을 함께 키워감으로써 同歸一體의 이상사회를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東學을 의도적인 교육운동으로 전개시키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東學의 敎育思想은 현대교육을 성립시키는데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166]

東學 敎育思想을 고찰을 통하여 現代 敎育的 意義를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의 관심은 인간이고 교육의 성과 역시 인간에게 나타나는 성과를 말한다. 그런데 교육은 인간과 가장 밀접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핵이어야 할 인간에로의 관심은 희미해지고 망각되며 도리어 주변적이고 이차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167]는 지적과 교육적 영위에서 정신적으로 부흥하고 재창조해야 할 제일의 사업이 교육가치관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東學思想이 이와 같은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1. 人本主義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늘날 우리사회는 현대 산업문명에 따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인간이 자본과 기계에 예속되면서 인간성의 매몰되어 인간의 위기의식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사상과 서구문물과의 본질적인 조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서구문명을 수용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호개방 이후로 후기개화파가 의도한 대로 전통을 서구문명으로서 전적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168]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의식에는 전통사상이 잠재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법률, 교육제도 등은 서구문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위기 의식은 기계화문명 속에서 인간성의 매몰과, 전통과 서구문명의 잠재적인 갈등 속에서

165) 한국교육연구소(1993) 편,「한국교육사」, 풀빛, p.353.

166) 김영미(1996), 전게논문, p.76.

167) 배천웅, 최상근, 박종인,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 P.19, 장원배(2002), 전게논문, P.57에서 재인용.

168) 금장태, “동서교섭과 근대한국사상의 추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이종우(1995), “동학의 인간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78에서 재인용.

인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림으로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 문제인 인간성 상실, 지나친 이기주의 및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 많이 유지됨으로써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며,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169] 이러한 人間危機의 극복방법은 전통사상의 현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통사상의 현대화는 서구문명을 수용함으로서 우리의 것으로 창조하는데서 얻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단군시대에 古神道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사상인 弘益人間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사상으로서 儒佛仙을 수용함으로서 한국적인 유불선을 창조했던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우리나라 본래의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과도 부합된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전통은 人間中心思想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통사상이 민중 속에 일어나 현실에 등장한 것이 人本主義 思想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東學이라 할 수 있다. 東學의 인본주의 사상을 현대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敎師는 학생의 삶의 주체적 존재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人間的 可能性을 동반자의 입장에서 함께 성장·발달시켜 나아가야 한다. 즉 學生을 삶의 주체로서 인간화 교육의 중요성의 확신과 지도방법에 民主化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서로 水平的 위치에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기 위한 敎育課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올바른 敎育이란 모든 학생의 정신과 육체에 깃들어 있는 생명력과 잠재된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키우고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다음으로 東學의 師弟觀을 살펴보면 삶의 동반자로서 민중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에게 스승이 아닐 것인가. 나는 비록 부인과 소아의 말이라도 배울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170]
>
> ……
>
> 남이 나를 알아보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나의 실행과 앎이 항상 부족하다 근심하라[171]

169)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p. 338.

170)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敎中央摠部, "孰非我長 孰非我師 吾雖婦人小兒之言 可學而可師也"

171) 이돈화(1968), 상게서, p.32.

라고 하여 민중의 내재적인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삶의 동반자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東學思想은 형식적, 권위적인 지도자에 의한 지식체계의 일방적인 전달과 이로 인한 주종관계를 통하여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 계승하려는 전통적인 교육체계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역사와 사회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자각적인 의식을 형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侍天主, 人乃天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人本主義 敎育思想을 現代的 意義를 교육현장에 적용시킨다면 학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 敎師와 學生간에 서로 인격적인 존중, 사랑이 밑바탕이 된다면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 요즘, 學校敎育은 지식위주, 입시위주, 기능인양성 등의 교육으로 바뀌어 인성교육은 부수적인 경향으로 흘러 자칫하면 학생들의 참된 인격도야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오직 학업성적 우수자들만 대우받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학생들간에 괴리감이 생겨 우수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들끼리 집단을 형성해 열등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 현상이 생겨 참된 학생의 인간상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을 교육현장에 투입한다면 학생상호간에 인간적인 만남으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 현상은 없어질 것이며 참된 학생의 본모습으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敎師와 學生간에도 역시 괴리감이 존재한다. 학교 입장에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명문대학에 몇 명 진학했느냐를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입시위주, 성적우수한 자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 열등생 인격적인 무시나 인격이하의 비하발언등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열등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아져 잠재적인 학습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을 학교 교육현장에 敎師와 學生간에 잘 활용하여 도입시키면 학생과 교사사이에 마음에 벽을 무너뜨릴 것이며 인격 대 인격의 자연스런 만남으로 師弟間의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東學의 인간 중심적인 人本主義 敎育思想을 잘 살려 문제점을 보완했을 때 水雲의 人間觀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비인간화된 현대사회의 병폐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로서 인간의 모든 가치기준을 자본의 다소로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172] 東學의 人間觀은 인간은 누구나 그들 자신 속에 모신 한울님과 같이 무한한

172) 김용준(1994), “동학의 인간관”, 「동학100주년 기념논총」, 이종우(1995), “동학의 인간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p.78-79에서 재인용.

존재이기에 결코 인위적 제도적으로 차별될 수 없다는 侍天主 思想을 기초로. 養天主, 人乃天思想을 바탕이 되었으며 실천방법으로 인간화 교육에 목적을 두고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이 侍天主 하였기에 人乃天으로 인간적 가치를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소유하였음을 깨우쳐 주고 있으며, 東學의 이러한 인본주의 교육이념은 尊嚴한 人間觀, 自律的 人間觀, 創造的 人間觀으로서 현대적 교육이념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173] 인간은 누구나 侍天主의 존재로서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진 위대한 존재로 파악되어 인간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떠난 한울님을 생각할 수 없으며 한울님의 가르침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侍天主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밝히면 東學의 인간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다.[174] 그리고 '사람이 한울'이라고 한 人乃天은 봉건적 신분질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모든 인간을 존중하여야 하며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웅변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인간존엄성을 최대한 지키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는 인간지상주의를 통해서만 유교주의, 봉건적 계급요소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모든人間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人間을 尊重하고 모두가 平等하게 사는 것이 최상의 국가요 사회라는 이치를 내세운 서구 민주주의도 남녀차별이 최근까지 엄존해온 것에 비할 때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가장 인간을 평등하고 귀하게 하는 사상이다.[175] 東學의 인본주의 교육사상은 삶의 경험이 바로 교육적 경험이 된다는 평생교육체제의 확립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삶의 주체인 백성들 편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는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대상을 형식적이고 제도적, 협의적인 개념을 삶의 그 자체의 차원에까지 확대시켜 교육의 개념으로 내세우고, 현대의 사회교육이 점차 형식적·제도화됨으로써 그 본래적인 의의와 기능이 문제시되어 있음을 뜻하기도 한 것이다. 최근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平生敎育體制의 구축은 이를 제기하는 하나의 불가피한 요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이제 현대인은 누구나 일정기간에만 주어졌던 제도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에 놓였음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체험

173) 이응렬(2000), 전게논문, p.54.

174) 이하재(1992), 전게논문, p.66.

175) 김점권(1997), 전게논문, p.74.

을 통한 교육,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교육이 아닌 더불어 사는 모든 민주시민은 人本主義 敎育思想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176]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세계화에 발맞추는 교육사상으로 볼 수 있으며, 시민정신과 인간교육정신이 시급히 요청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볼 때, 우리의 교육에 主體的이고 人道的인 동학 교육사상을 활용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내용 중에서 강조된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한국교육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인간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각급 학교의 敎育理念과 敎育目的 수립을 위한 사고의 틀을 제공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177] 오늘의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성 회복의 교육이요, 인간존중사상의 강화라 할 수 있다.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인간에 대한 신뢰, 경외 이념이 없이는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을 다루는 기본적인 명제를 밝히는 것이다. 어떤 이론보다도, 교육의 출발과 귀착은 인간에서 시작되고 인간에서 끝나야 한다는, 근본적인 사상을 제시한 東學의 敎育思想은 오늘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의 절대요소임에 재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78] 人本主義 敎育思想의 현대교육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人間敎育이 인간을 궁극의 목적으로 보고 최고의 가치라 할 때 學校는 人間愛로서 일반소양을 쌓는 보다 人間의 價値를 존중하는 교육에 힘써야 하겠다. 敎育의 최고 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일이다. 學校敎育의 철학적 근거 역시도 人本主義 思想을 교육에 있어서 실현시키는 데 있다. 이처럼 인간존중을 민주교육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구사상의 장점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東學의 人乃天에서 인간존중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교육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179]

둘째, 東學의 교육방법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능력의 자각에 주력하였다. 전통적인 주자학적 지식전달인 외형적인 박식을 대신해 동학의 교육방법에서 人

176) 정기춘(2003), “동학의 민주주의적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pp.47-48.

177) 정기춘(2003), 상게논문, p.53.

178) 김재우(1986), “동학에 있어서의 교육가치적 측면에 관한 고찰”, 「동양공전 논문집 제8집」, p.16.

179) 송준석(1993), 전게논문, p.53.

間의 主體的인 자각을 위한 내면화, 직관화 방법을 강조하였다. 즉 일심갈력의 자기 수련으로부터, 待人接物의 겸손한 성격과 자녀, 가정, 사회에 대한 일상생활의 신중한 처리태도를 중시한 人性主義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교육사에 있어 현대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학교교육이 입신출세 위주의 주입식, 지식 일변도에 몰입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반성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180)

셋째, 敎育에 있어서 인간화 이념은 인간적 가치가 교육이념 체계의 정상을 차지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생각하며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인간적 주체성을 위한 교육은 人間敎育의 本質的 핵심이라는 각도에서 정립하여야 하며,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대화의 인간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181) 愛國愛族하는 市民精神과 인간교육정신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한국교육현실에서 볼 때, 인도적인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을 활용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182)

넷째, 東學의 '누구나 기운과 마음을 잘 다듬으면 무궁한 존재로서의 인간인 賢人君子가 될 수 있다'는 이상적 인간상은 모든 민중의 교육적 이상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당시 특정지배 계급이 느꼈던 귀족적 군자상을 극복하고 守心正氣를 통해 누구나 한울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그 자체가 마음과 기운이 궁극적으로 조화에 바탕을 둔 전인적 인간성을 근저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民衆의 能力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기에 교육적 理想像으로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183)

다섯째, 東學의 교육은 형식적·제도적 교육에 제한되었던 협의적인 교육개념을 '삶'그 자체의 차원까지 확대시켜 平生敎育體系를 확립하였다. 즉 지적인 앎을 위한 교육에서 진정한 삶을 위한 교육에로 그 개념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水雲은 그의 侍天主 思想에서 도를 타인으로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네 몸에 모신 자아로서의 인간됨의 바탕에서 구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海月 또한 고원난행에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실행과 앎에서 도를 추구할 것을 내세웠다. 따라서 사회교육의

---

180) 이응렬(2000), 전게논문, p.55.

181) 손인수, 「한국교육사상사Ⅳ」, pp.1127-1128. 이강일(1992),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사상", 석사 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p.43-44에서 재인용.

182) 송준석(1993), 전게논문, p.53.

183) 송준석(1993), 상게논문, p.42.

학교화를 마련하였다.[184]

2. 平等主義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주자학의 전통에 의하면 聖人君子는 학문을 장기간 수련하여 학문과 덕을 쌓아 입신출세하여 관리가 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수의 특권층인 양반자제의 독점물이 되었다 이에 비해 東學은 일반대중이 한울님을 모시고 진리를 깨닫고 誠·敬·信을 다하면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일반 민중의 平等意識을 고취시켰다. 東學의 종지는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吾心卽汝心)'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벽이나 우상을 세울 수 없고 인간성과 자연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제도와 윤리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東學의 平等思想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교주나 동학교도들의 숙명적인 염원이었다. 東學은 철저한 人間平等主義를 주장하고 있다. 東學의 平等主義는 신 앞에 평등을 주장하는 基督敎의 그것과는 다르며 또 법 앞의 평등을 뜻한다는 법률적 평등과도 차원을 달리하여 하느님을 누구나 모시고 있다는 侍天主의 입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한다.[185] 東學思想은 향촌사회의 광범한 농민층에 기반을 둔 밑으로부터의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다 민중적 성격과 민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졌다는 점은 근대사상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진보적인 측면이다. 특히 東學思想이 갖춘 완전한 萬民 平等主義는 봉건적인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民主主義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원형질 같은 요소로서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186] 東學의 平等主義敎育思想에서 나타난 現代的 意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東學의 侍天主, 人乃天思想에서 표명하고 있듯이 남녀노소·적서·반상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한울님이라 하여 당시의 민중들에게 계급타파의 당연성과 人間平等 의식을 심어 주었다. 봉건계급 사회 속에서 억압받았던 민중들에게 天賦的 平等意識을 심어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교화 작용을 한 것이다. 平等의 시작

184) 심형진(1998), 전게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43.

185) 이하재(1992), 전게논문, p.66.

186) 최홍규(1996), "동학의 민족주의와 역사의식", 「경기대 민족문제 연구 제3집」, p.283.

은 바로 천부적 인격의 존중에서부터 찾아야 한다.[187] 東學의 平等主義 敎育思想은 모든 인간, 만물 등을 차별 없이 平等하게 대우하라는 사상으로 동물에는 動物의 格 식물에는 植物의 格이 있어 천지 만물에도 그들 나름대로 格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겨 차별 없이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상으로 현대 교육에 있어 平等主義 敎育思想이 시사하는 바는 모든 인간 천지만물을 소중하게 여겨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점은 현대교육에 의의는 매우 크다. 지금의 시대는 상하귀천이 없는 평등의 사회임에 틀림없지만 배금주의와 사회의 모순, 부의 편중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평등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위주의 교육이나 기능주의적 시각은 전인적 인격훈련을 통한 생활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188] 또한 東學思想의 중요한 의의는 水雲이 지은 포교용 가사집인 龍潭遺詞가 한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층민과 부녀자를 위하여 한글을 사용한 점이다. 이로 인해 국문의 보급이 촉진되었고 이후 교육의 균등, 平等한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189]

둘째, 東學의 地上天國 建設은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이 同歸一體하는 결과의 평등을 주창한 것이다. 이는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함께 우리만의 독특한 平等主義 敎育思想으로 해석이 가능하다.[190] 이는 우리 나름의 새로운 평등교육사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敎育目標, 敎育課程 중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한 교육목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191]

셋째, "모든 사람은 平等하기에 守心正氣하고 誠敬二字 잘 지켜내면 누구라도 무궁한 존재인 賢人君子(地上神仙)가 된다."는 사상은 수도과정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등뿐만 아니라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平等한 교육이념상을 내재하고 있다. 東學의 교육은 안으로 소외된 하층민의 인간적 자각을 위한 민중교육으로서 전통적인 양반·치자 중심의 교육에 대해 근대적인 민중중심의 교육에의

187) 송준석(1993), 전게논문, pp.113-114.

188) 손정호(2001), "동학의 교육관과 그 현대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57.

189) 김영미(1996), 전게논문, p.125.

190) 송준석(2000), 상게논문, p.87.

191) 송준석(1993), 상게논문, pp.113-114.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상류층, 권력층에만 교육의 기회가 부여된 것을 일반하층 백성,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배움에 차별을 두지 않는 平等한 敎育機會를 제공하였다. 현대 교육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平生敎育, 全人敎育의 초석을 동학의 평등주의 교육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敎育의 機會平等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장면에 주어지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교육의 기회평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① 就學機會의 平等이다. 인종, 종교, 성, 출신성분 등 귀속적인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등 있게 제공되거나 신체적, 지리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교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② 동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敎育施設이나 교원, 교육비 등 교육 여건 면에서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는 교육자원이 配分의 平等을 통해서 이룩되는 상태이다.

③ 동등한 질 내지는 동등한 효과의 교육이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업성취도나 사회 경제적 효과 면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명제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은 교육을 하나의 체제로 볼 때 投入, 過程, 産出에 해당한다. 즉 교육기회의 평등이란 취학의 단계와 교육을 받는 단계, 그리고 교육이 종료되는 각 단계에서 평등한 혜택과 기회가 보장되는 상태의 교육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서 볼 때 교육의 機會平等 문제는 공교육기관이 社會의 倫理的 준거를 만족시켜야 할 당위성 중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비의 배정,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사확보, 교수방법의 효율성, 학교환경의 특징, 진학의 기회, 취학에 대한 고려, 학생의 생활지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일 등 어느 것이나 평등의 교육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 평등이 물리적, 경제적 평등에 집중되었던 것이 점차 교육 내재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개인의 능력신장에 대한 학교교육의 결과, 성취도를 준거로 삼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요즘 교육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 敎育의 機會가 平等化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갖추고 각자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敎育機會의 擴張이 우선

그 평등화의 일차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②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되려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내용, 학교교육의 방법 및 재료, 교사와 자격 등이 지역, 계층, 성별들에 따라 큰 격차가 없어야 한다.

③ 교육기회 평등 문제는 불리한 경쟁여건에 처한 사람들을 교육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의 구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④ 國民들의 올바른 認識과 態度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적 기회평등의 원칙을 이해함에 있어 평등한 교육과 획일적 교육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회평등의 이념은 각자가 지닌 능력과 관심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것이지, 개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만인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평등한 교육기회란 각자가 능력과 뜻하는 바에 따라 그 개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의미임을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의 기회평등에 관한 중심과제는 교육기회의 正當한 配分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있으며, 이와 함께 국민이 교육기회에 대하여 갖는 태도 및 만족도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192]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의 기회평등, 평등교육의 원칙을 東學의 平等主義 敎育思想을 접목시켜 볼 때 동학의 평등주의 교육사상은 계층, 신분, 성별, 지역, 직업 등의 이유로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으로 이를 교육 현장에서 잘 활용하면 교육기회의 평등한 배분을 보장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평등교육의 실현으로 소극적 입장에서 보면 차별금지의 원칙이 되며 적극적 입장에서 보면 국가복지 생활증진의 원칙이 된다. 즉 복지사회 이념의 출현과 함께 적극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는 조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

3. 女性尊重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東學은 侍天主·人乃天의 思想을 통하여 모든 차별을 부정하고 守心正氣를 통해 누구나 한울님이 될 수 있다는 萬民平等思想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존중으로 인해 새로운 여성을 인격체로 대접하였다. 이것은 人間敎育에서 人間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며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교육이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이 주

192) 강정일(2001),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교육기회 평등분석”,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pp.8-10.

체가 되는 교육, 인간이 목적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교육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平等理念의 가치 인식을 중시하고 정착되려면 교육이나 교화를 통한 내면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人間의 高貴性과 自由와 幸福의 추구라는 여성 스스로의 여성의식을 각성시키고 인격적 남녀동등을 의식시켜 스스로의 자아를 발견하고 탐구하고 실현하는 인식의 교육이 필요하다.[193] 東學에 나타난 女性尊重 敎育思想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東學思想에서 나타나는 구도 방법인 守心正氣는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통해 자아개념을 자긍하게끔 하므로 종래의 儒敎社會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조차 인식되지 않고 소외되어 온 여성에게 한 인간의 주체자로서 깨닫게 하였다. 또한 유교사회 속에서 군자만의 덕목인 誠·敬·信을 동학에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德目化 시킴으로써 순종과 정절만을 덕목으로 삼던 여성에게 새로운 의식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水雲은 종래의 유교적 굴레 속에서 여성역할의 중요성은 물론 남존여비사상으로 일관된 지배·복종과 인격적인 억압 그리고 인고만을 강요받던 예속성의 존재에서 '家道의 和順은 부인에게 관계한다.'라 하여 정성과 공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인역할의 중요성과 부인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새로운 바람의 환기였다. 이는 유교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근대적 가족제도인 水平的 夫婦關係로 나아가기 위한 함께 사는 가정으로의 진일보인 것이다.[194] 東學은 人乃天이라는 평등과 인도주의의 지향에 따라 여성해방, 남녀평등을 절규하였으며 주로 농촌사회의 여성을 중심으로 교화하였다. 水雲은 가정이 인간만사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가정은 대등한 관계로 성립된 부부에 기초를 두는 것이 바른 이치라고 하였다.[195] 水雲은 남녀는 道닦는 자이므로 平等하다고 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인식을 종교사상인 家和論으로 형성·표출시켜 가부장제에서 새로운 가족관을 갖게 하였다. 水雲의 女性觀은 완전한 한 인격체로 여성을 인식한 것과는 거리감이 있으나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뚜렷이 女性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던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결국 女性들은 三從之道와 七去之惡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水雲은 安心歌에서 당시 사회에서

193) 정기춘(2003), 전게논문, p.47.

194) 권경애(1998), "동학사상의 근대적 여성관에 관한 연구", 「상명사학 제6집」, p.72.

195) 박용옥(1975), 「동학의 남녀평등사상」, p.111.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득도한 도를 준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득하여 새로운 여성관을 밝히고 있다. 東學思想은 여성해방과 함께 男女平等觀·社會參與觀을 정립시켜주고, 외면당하고 있던 그 당시의 여성에게 사회참여의식과 해방사상을 고무시켜 주었다. 더욱이 남녀간의 관계에 종래적인 인내와 맹종의 강요시대로부터 벗어나는 사상적 배경을 심어주어 협조적인 인간적 대우와 존중으로 발전되어 가는 교훈적 의미를 넓혔다.[196] 그러나 水雲은 한국 여성개화에 있어서 女性의 열악한 환경의 타개나 여성지위 향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水雲에 있어서 女性이란 最靈者이며 한울님을 모신 주체적 여성이며,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확보한 무궁한 여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성의 한 특징인 男女平等과 여성의 위치와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여성존중적인 시각으로 일단은 여성비하의 전통적인 여성관을 극복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민족의 자각적인 여성의식 전환의 첫 시도로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水雲의 여성관은 새로운 여성인식을 태동케 하였으며 근대적 여성관으로 전환케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197]

둘째, 水雲에 이어 海月의 女性觀은 더욱 발전하게 되는 데 婦人修道에서 "婦人修道는 우리 道의 근본 이니라"라고 하여 지난날의 종속적, 수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 주체적인 위치로 설파하였다. 또한 "청주의 서택순의 며느리가 늦은 밤에 베짜는 소리를 듣고 그것은 아무개의 며느리가 베 짜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한울님이 베를 짜신다."[198]고 하였다. 이는 士農工商을 모두 귀하게 여기고 베짜는 자부의 모습에도 한울님이 있다는 생각에 노동을 신성이 여기는 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이는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에서 올바른 職業觀을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199]

셋째, 東學의 女性觀은 부인을 인격적인 대우와 인격적인 존중을 해야 하며 여자도 인격적인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內則과 內修道文을 지어 여성 교육용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東學의 여성관이 서구의 사상

196) 이현희(1986), 전게서, p.100.

197) 최지희(1992), "수운 최제우의 여성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p.42-43.

198) 이돈화(1979), "천도교 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 2」, p.36.

199) 송준석(1993), 전게논문, pp.115-116.

적 영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성장을 통해 나타난 근대적 여성관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女性開化運動은 우리의 전통적 사상의 성숙으로 형성된 여성운동으로 여성 스스로에게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전제로 女性意識을 각성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주었으며 여성신분의 해방과 그 격상의 의식화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날의 女性觀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여성해방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人間回復, 人間 尊嚴性을 자각케 하는 여성운동의 과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존엄사상 위에 정립된 東學의 여성관은 바로 인간의 고귀성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라는 여성 스스로의 女性意識을 각성시키고 인격주의적 남녀평등의식을 심화시켜 스스로 자아발견 및 자기실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200] 그러나 사상적 한계성으로 男女平等을 주장하여 진취적이며 근대적인 여성관을 주장하였지만 女性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東學의 女性觀이 완전한 思想으로 성장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의식의 발전이 필요했던 것이다.[201]

넷째, 東學의 女性尊重思想은 그대로 여성을 태동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간직해 온 女性觀의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교육과 여성운동 역시도 인간회복과 인간존엄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의 이념 및 방향이 人間中心의 높은 차원에서 정립되어야 하리라 본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女性觀, 나아가 인간관의 정립이 필요하며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東學思想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人間으로서의 尊嚴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女性의 人間化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야 할 것이다. 여하튼 女性尊重思想이 이 땅의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여성의식을 각성시킴과 동시에 男女平等이라는 휴머니즘의 세계를 알게 했다. 실로 그들의 활동은 혁신적 운동이며, 여성해방의 큰 복음이기도 했다. 그러니 東學의 女性尊重 敎育思想은 이 땅의 여성들에게 '나' 자신을 찾는 자아탐구, 자아발견, 자아실현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現代 敎育的 意義를 찾을 수 있다.[202]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부장 사회로 옛날부터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

200) 이용희(1991), 전게논문, p.58.

201) 노무지(1990), "동학의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104.

202) 손인수(1988), "동학의 인간관과 교육관", 「신인간 제464집」, PP.472-473.

로 여겨, 하대했으며, 七去之惡 적용해 모든 면에서 많은 행동에 제약이 따랐고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東學의 女性尊重思想은 그 당시엔 대단한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水雲의 종들을 하나는 며느리로, 하나는 수양딸로 삼은 것은 양반과 천민의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신분상 당시 반상간의 혈연을 맺을 수 없었던 장벽을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무너뜨린 획기적인 일이었다. 여성을 부속품이나 천대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의 인격체로 우대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의가 있다. 요즘 사회에서는 水雲, 海月이 언급한대로 여성 존중하는 사회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여권신장으로 인한 女性의 家長權 主張, 여성 성씨 사용 등 사회 다방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치, 사회, 군사, 문화,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남성들과 대등한 활약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들도 남성과 대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남성 우월주의적인 선입견은 버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女性尊重의 교육사상으로 현대적 의의로 東學에선 벌써 130여 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여 여성존중의 교육사상 실천해 여권 신장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의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兒童尊重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兒童尊重 敎育思想은 水雲과 海月의 思想에서 이를 찾을 수 있는 데 水運은 人乃天 思想에 입각하여 兒童은 다 같은 인간이며, 한울님과 같은 존재이므로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어른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지만 현재 힘이 없는 존재이므로 존중되고, 바르게 키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海月은 水雲의 사상을 더 구체화시켜 아동을 바로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內則'에서는 胞胎時부터 부인들이 지켜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동은 한울님이기에 한울님을 잘 길러야 한다는 養天主의 사상을 보이고 있다. 民主主義의 基本理念은 인간에 대한 존경, 인간의 개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란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외래의 구속이나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가 보장되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개인이 평등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 개인의 독특한 개성

이 존중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는 하나의 이상이며 꿈일 뿐 실제 모든 사회체제의 운영 및 조직관리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사이에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의사결정 참여불허, 학교에서의 토론문화의 미 정착 등이 그 예이다. 민주적 사고, 민주적 질서의식, 민주적 행동양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민주적 인격형성과 생활습관을 기성세대를 통하여 형성할 수 있도록 좋은 민주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민주생활의 근간인 공동체의식과 협동정신의 발휘를 통해 민주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203] 오늘날 청소년들은 '周邊人'이라 하여 성년과 미성년의 중간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정신적인 방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으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딜레마에 빠져 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갈등, 혼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상당히 이탈하였으나 그에 대신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과정에 있으므로,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모순을 찾아볼 수 있다.

②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미 확립은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아노미'현상을 초래하여 青少年의 價値觀의 혼란 및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있다. 세계화·개방체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이념, 급속하게 팽창된 각급 學校制度 널리 보급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스컴이 외국의 문화를 쉽게 도입하여 전통적으로 청소년을 통제하였던 도덕과 규범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게 하였다. 물량주의 사고방식과 감각적인 퇴폐풍조 및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이나 도덕과 규범 및 합리성은 거부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윤리의식의 약화와 새로운 도덕과 규범이 미 확립된 가운데 '차마 그럴 수가'하던 일들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 부모, 스승에 대한 반항, 권위에 대한 도전, 개방적인 남녀관계 등이 그 예이다.

③ 극단주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극단주의 중에는 서구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맹종한 나머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여 서구의 문화와 생활을 모방하거나 혹은 반대로 국수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적인 것만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순기능으로 공헌할 수 있는 가치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역기능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203) 권이종(2000), 「청소년 교육개론」, 한국교원대학교. pp.516-517.

입 과정에서 서구적인 풍조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맹목적 수용이나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외래적인 풍조의 무비판적인 도입이나 지나친 배타주의는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204]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는 제 2의 성숙기에 접어드는 과도기여서 가치관의 미성숙, 극단주의, 아노미현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靑少年像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적인 새 시대의 바람직한 청소년상 확립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추상적인 일이다. 청소년상 확립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합의된 공동의 價値觀을 찾아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이해를 돕고자 먼저 김태길 교수의 '바람직한 한국 청소년 상 소모'를 소개한다.

① 人間을 尊重히 여기는 태도가 몸에 배어야 할 것이다. 남의 인격과 권익을 나의 그것에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② 民主主義를 위한 일꾼들은 사리에 밝고 公正心이 강해야 할 것이다. 좋은 의미의 합리적 정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③ 民主主義는 강한 共同體 意識과 協同精神을 요청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서로 협동하는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개인의 행복을 이룩할 수 있으며, 공동체가 쇠퇴하면 그 안이 개인들도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④ 한국의 청소년들이 남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기회가 있을 때는 이에 보답하는 미덕을 갖춘 인품으로 성장하기를 염원한다.

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풍요하기를 염원한다.

⑥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進就의 氣像이 넘치고 창의성이 강하기를 희망한다.

⑦ 한국의 청소년들이 韓國의 文化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며, 나아가서 새로운 民族文化 創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가 세계문화에 기여하는 올바른 길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살리는 방향에서 찾아야할 것이다.[205] 올바른 靑少年의 價値觀 確立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원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몇 개의 경험적 연구를 종합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바람직한 한국 청소년상의 구비요건을 東學의 敎育思想에 포함되어 있어 바른 가치관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兒童, 學生, 靑少年들에

204) 권이종(2000), 전게서, pp.177-178.

205) 권이종(2000), 상게서 ,pp.513-514.

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東學의 兒童尊重思想은 兒童을 人格的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사상으로서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주는 지침이 될 것이다. 東學의 兒童尊重 敎育思想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성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兒童中心의 교육방법을 택하여 아동은 어른의 종속변인이 아니라 獨立變人으로서 아동중심의 교육을 전개했다. 실로 兒童은 내일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교육적 잠재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력자원인 동시에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人乃天 思想에 따라 말없는 어린 세대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말없는 소리를 듣고 人格者로서의 兒童을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兒童의 어른의 종속물이 아닌 것이다. 兒童의 말이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사상은 교육의 가능성을 상하의 종속적 일방통행으로 보지 않고 上下 雙方의 水平的 關係로 바꾸어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敎師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學生에게 배울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이 서로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만남이 일방통행은 존재치 않고 항시 서로에게 열려진 가능성의 존재로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東學의 아동존중사상은 아동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보는 인간본위의 교육사상이며 兒童이 주체가 되는 교육사상으로서 現代的 意義가 있다.[206]

둘째, 兒童을 깨끗한 靈魂을 가진 존재, 신령한 존재로 보기에 포태부터 한울님을 기른다는 사상은 天賦的인 兒童尊重思想이니 우리 고유의 兒童敎育思想으로 재정립함이 필요하다.[207] 胎兒부터 유아, 아동을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한울님을 대하듯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의 인격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육자들은 어린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인격과 사랑으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東學은 제시하고 있다. 이 兒童觀은 한국사에서 최초의 획기적인 선언으로서 東學의 兒童尊重 敎育思想은 소년해방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208]

셋째, 東學의 兒童尊重思想과 교육을 통해 볼 때, 東學의 어린이에 대한 사상은 한울님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지극하다. 이것은 어린이를 어른 위에 두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른의 소유물로 여길 정도의 아동교육 부재상황을 타개하고 아동을 제대로 길러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다. 海月은 水雲의 思

206) 이용희(1991), 전게논문, p.61.

207) 송준석(1993), 전게논문, pp.115.

208) 김영미(1996), 전게논문, p.35.

想을 더 구체화시켜 아동을 바로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內則에서는 胞胎時부터 婦人들이 지켜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동은 곧 한울님이기에 한울님을 잘 길러야 한다는 養天主의 思想을 보이고 있다. 東學指導者들의 아동존중의 사상을 이어 받은 교육자들의 아동교육 실천은 현대적 시각으로 보아도 매우 뛰어나다. 오히려 아동을 위한 순수한 교육열정은 지금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兒童尊重 敎育思想을 교육실천 방법을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면 현재의 갖가지 어려운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을 살리면서 미래지향적인 이상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209]

넷째, 海月은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210]라고 했으니 東學의 兒童尊重敎育思想은 兒童을 인격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한울님을 待하듯 길러야 된다는 것이다. 아동체벌에 대해 근원적으로 반대했다. 당시의 전통사회에서는 아동은 어른의 놀이게 감, 피조물로 여겨 천대시하며 어른들의 폭력에 무차별적으로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 요즈음 兒童을 자기 자식이라 하여 소유관념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兒童의 영혼은 무욕청정 하여 천심으로 한울님과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라 하였다. 이 사상은 요즘 교육현장에서 체벌금지와 연계시켜 적용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면 자연적으로 감정이 개입하게 되어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체벌할 소지가 있어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탓할 시에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訓育하는 차원에서 지도·계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도저히 안 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벌로 대체시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학의 체벌금지 아동존중사상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면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강한 信賴感이 형성될 것이다. 아동 체벌에 대한 문제를 東學의 敎育觀과 결부하여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시대의 水雲, 海月의 아동존중사상은 그 당시에 대단한 충격적이고 신선한 사상이었다. 아동존중 사상은 그 후 지속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여 방정환, 김기전을 중심으로 하여 兒童, 靑少年 운동을 전개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이후 오늘날에 兒童이 진정한 人格體로서 대우를 받으며 미

209) 김점권(1997), 전게논문, p.78.

210) 海月神師法說, 待人接物, 天道敎中央摠部. "道家婦人輕勿打兒 打兒卽打天矣"

래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만약 동학의 아동존중 사상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아동들이 과연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반문해본다. 이런 면에서 東學의 兒童尊重思想은 현대 교육적 의미에서 동학이 어른들이 兒童을 소중한 인격체로 여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現代的 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道德主義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요즘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인간의 지나친 금전적 이기주의가 맞물려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 가치를 저버리게 하였다. 또한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외적 대상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인간이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여 道德的 要求를 저버리기도 한다. 이 모두가 인간의 부정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초래하게 된 현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회의 발전은 고사하고 인류 문화의 몰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人間精神의 회복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듯이 道德性의 確立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물질주의, 향락주의를 초월하는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은 도덕의 절대성을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道德을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때는, 도덕규범은 언제든지 포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東學은 도덕을 천인관계의 산물로 봄으로써 그 절대성을 확립하였고, 한울을 의지의 원천으로 봄으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리사욕을 초극하여 한울의 公利公慾에 따라 도덕적 요구를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상당히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道德的 命令이 대부분 인간의 사리사욕에 의하여 거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至公性의 原則은 정곡을 찌른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도덕적 요구를 저버리기 쉬운 요즈음, 道德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오늘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211] 현재의 道德敎育이 人間性 喪失로 인하여 빚어지는 사회 병리현상을 치유하지 못하고 허물만 이루어지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1) 팽필원(1995), “동학윤리사상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125.

사회의 대부분의 병리적인 인간소외나 인간실종의 현상은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인시천적 인식에서 인간을 기계나 하나의 종속물 또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용될 때 야기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역사와 내면에 깃들어 있는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은 재인식되어야 하겠고 水雲의 誠·敬·信이나 海月의 十毋天과 事人如天 思想은 다른 무엇보다 앞서 교육과정에 투입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문화와 전통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道德과 제나라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찾아지는 道德은 내면화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12]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은 유교의 논리만은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바른 도리를 이끌어 내는데 활용되고 있다. 道德歌에 나타났듯이 모든 사람들은 모름지기 三綱五倫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하며 스스로 수양하여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가적 제약, 즉 법으로 강제하는 타율이 아니라 인간내면의 교화를 통해 道德社會를 이루어 나가려는 높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道德主義 敎育思想은 한울님을 모시는 올바른 태도, 즉 수도의 방법을 나타낸 사상이다.[213] 이와 같이 侍天主의 종교적 실천으로부터 사회의 참된 윤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다시 말해 侍天主의 자각으로부터 나타나는 참된 자아에 대한 誠·敬·信의 思想은 동시에 다른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세상사람 모두가 守心正氣를 통해 본래의 성실한 마음을 보존하며 동시에 참된 자아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성·경·신의 道成德立으로 君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214] 이상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각성을 중시하는 自律的인 道德的 人格形成을 돕는 점이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타율적인 방법도 인정되나 동학의 교육은 心學을 바탕 하여 인간이란 본래 신령스러운 마음 또는 赤字之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修道와 修德에 의하여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학의 侍天主, 養天主, 守心正氣 등은 자아각성으로 주체지를 확립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기위한 바탕이 되는 것이다.

둘째, 人間尊重의 극치인 人乃天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존중되기보다는 정신문화보다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물질

212) 이헌동(1993), 전게논문, p.124.

213) 김점권(1997), 전게논문, p.74.

214) 이하재(1992), 전게논문, p. 66.

문명·기계문명·산업문명의 와중에서 인간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인간이 천시하는 그 자체가 비도덕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학의 侍天主에는 敬의 뜻이 있다. 그리고 侍天主를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인도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敬의 실천이며 도덕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敬의 대상은 天 또는 我心·自心이며 敬人·敬物이다. 그래서 海月은 '吾心不敬이면 天地不敬'이라 하였고 三敬說을 설했다.

셋째, 行動과 動機를 다 같이 중시한 점이다. 東學의 개념에는 도를 실천하는 행위와 守心正氣의 방법에서 보듯이 사심 없는 마음, 즉 內有神靈의 마음을 자각하여 지키려는 노력은 동기·태도·성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은 단순히 기성도덕의 전달이나 내면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회의 가치 체계를 초월하는 個人의 自律的 차원도 인정한 점이다. 천도를 본받아 인도를 밝혀 천인합일을 강조한 점에서는 유가의 사상과 공통점이 있으나, 侍天主, 사인여천, 後天開闢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봉건계급 사회를 개혁하여 만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평등사회를 건설하려고 한 점에서 그 시대의 도덕을 초월하였다.

다섯째, 개인생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삶의 양식은 個人의 儀式을 바꾸는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家庭生活 측면에서는 가정의 의미를 재고하는 家庭이 곧 敎育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날의 가정은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인식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東學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부부간에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 위와 같은 소위 '가정교육의 부재'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社會生活의 측면에서는 인간성의 회복과 社會倫理의 타락에 대한 경계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사회는 인간성과 사회도덕, 윤리의 타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좇아가다 보니 그만 자신들의 존엄성이 추락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은 이미 당시의 문벌과 금력만을 추앙하는 것을 거부하

고, 정성, 공경, 믿음이 주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東學은 자연 만물까지도 존중하는 박애주의를 보여주었다.[215] 이상에서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心學에 바탕하여 本心, 즉 內有神靈을 각성 회복하는 주체지의 확립과 그 방법 및 도덕적 사회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敬天·敬人·敬物의 三敬 사상이다.[216] 海月의 事人如天과 이의 실천으로서 敬物은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보존에 부합되는 것으로 事人如天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이다. 결국 海月의 三敬사상인, 경천·경물·경인사상을 교육현장에 잘 적용시키면 하늘 땅,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敬物思想 즉 만물을 공경하라는 사상은 요즘 지구촌이 환경오염으로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과과정에 잘 접목시켜 나간다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뿐인 지구에서 생사를 같이하고 있으므로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 함부로 환경오염 시키는 일을 자제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즉 개인의 직접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은 소중히 여기면서 개인의 간접이해관계인 것에는 무책임하게 행동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직접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을 예를 들면 개인의 방 청소는 깨끗하게 잘하지만 개인과 간접이해관계인 공익과 관련된 거리 청소에 대한 무관심으로 함부로 쓰레기 방출하는 행위-환경오염, 공장폐수 방출, 무분별한 벌목, 과다한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하여 결국은 지구를 크게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직접이해관계와 간접이해관계를 차등없이 잘 적용시켜 東學의 平等主義 敎育思想중 海月의 三敬思想을 잘 활용하면 지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生命尊重思想으로 이 생명운동은 평화교육이나 환경운동의 측면에서 병들고 신음하고 있는 인류의 실천윤리로 가치가 있다. 아울러 스스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요소, 넓게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전인적 교육의 실천적 방향으로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을 현재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보편적 윤리의식으로 작용될 수 있다.[217] 道德主義 敎育思想

---

215) 양원철(2000), “동학사상의 윤리적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62.

216) 정순남(1998), 전게논문, pp.57-58.

217) 손정호(2001), 전게논문, p.58.

을 學校敎育 현장의 學生들에게 적용 한다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동료 학생 구타, 본드 흡입, 집단 가출 등 윤리적 타락은 없어지고 인간의 심성을 바로 닦는 기초가 되므로 인성교육이 잘 되어 안심·안신의 심리적인 정서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學生들의 도덕적 행동이 정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 정서중심의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서·지능향상 혹은 역할놀이 프로그램이 등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권장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실천적 인성지도 노력을 道德主義 敎育思想을 활용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교육적 성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인 성·경·신을 학교교육현장에서 잘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誠은 성실함,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도산 안창호의 愼獨과 연결된다. 즉 자신에게 진실하며 혼자 있을 때 삼가 하는 자세로, 매사에 항상 신중한 사람은 남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며 자신과 남에게도 성실하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므로 참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다. 敬은 공경하는 자세로 남에게 예의를 표하는 외면적인 것이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가 있어야 올바른 부자간이 성립되며 스승과 제자 간에 올바른 예의법도가 있어야만 바른 수업이 될 수 있고 임금과 신하 간에도 올바른 예의를 갖추어야만 군신간의 법도가 서며 군대에도 군율의 예가 서야만 군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예의는 체계질서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며, 서로간의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예의는 적중하여야 하며 지나치면 過恭非禮가 되어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信은 사람 말을 믿는 것으로 인간 상호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誠의 내면적인 참모습과 敬의 외면적인 공경이 서로 합치될 때 상대방에게 강한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안위, 빈부, 건강할 때, 병약할 때 어느 상황, 어느 때 상관없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인, 誠·敬·信을 일선학교 교육현장에 학생들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면 學生들을 진실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동학의 도덕주의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로 성·경·신을 교육현장에 잘 적응시켜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면 좋은 인성교육의 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守心正氣는 無爲二化로 마음을 바로 氣運으로 지키며 살아가면서 성·경·신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평시 자신의 내면을 잘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삶으로 가능할 것이다. 요즘 같은 매스컴, 인터넷,

TV 발달 등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 자신의 무방비적인 삶을 살면 결국 타락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 따라서 守心正氣의 삶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조절하고 절제된 삶을 산다면 現代 情報社會속에 부정적인 역기능을 발휘하는 情報속에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守心正氣를 학교교육현장에 잘 도입시킨다면 학생들에게 도덕심, 자제력과 통제력을 길러주는 본심을 잘 지키고 즉흥적이고 퇴폐적이며 방심, 방탕한 마음인 사심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대로 즉흥적, 감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한다.

6. 民族主義 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

21세기에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소련의 좌절이 과거 역사의 모순을 극복하여 보려는 20세기적 실험의 결과였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변화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순을 극복하여 보려는 21세기적 노력이다. 유럽의 이러한 21세기적 노력은 政治, 軍事, 經濟, 文化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변화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선행지표적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이 자신들의 國家利益을 위해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근대국가질서가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복합단위체를 만들어 國家利益, 地域利益, 世界利益을 동시에 추구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 국제질서의 참여를 위한 초보적 단계이자 숙제인 國內統合과 韓半島의 統一도 미처 끝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대 國際秩序의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유럽과 일본까지 포함하는 세계를 새롭게 볼 줄 아는 시각과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自由와 民主 그리고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계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東學思想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東學思想은 그 이론과 東學革命의 실천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일정하게 해답을 주고 있다.[218] 적어도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의 역사의 주역민족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分斷國家로서는 도저히 감

218) 노태구(1992),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 이념적 모색",「동학사상연구자료 9」, 열린문화사, pp.71-72.

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쪽의 資本主義的 사회양식에서도 많은 모순이 도출되었음을 느끼는 바이며, 社會主義的 사회양식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내어 실패가 증명된 이상, 서로 자기 체제를 일방적으로 강조,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을 전개시킬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이다. 그것이 남북연합이든, 수렴체계이든, 생명민주화이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찍이 김구는 '統一에는 統一思想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장준하는 '우리의 民族統一은 통일이상이다'고 했다. 여기서 '통일사상', '통일이상'은 민족통일을 위한 창조적인 통일 철학이 깔려있지 않고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남북의 민족적 삶이 더 이상 전면적 파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선 남한만이라도 생명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219] 남북한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 宇宙觀에 있어 남쪽은 觀念論을 취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唯物論을 취하고 있는 점이요,

② 인생관에 있어 남쪽은 性善說的 화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북쪽은 性惡說的 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③ 세계관에 있어 남쪽은 民主主義를 택하고 있는데 북쪽은 社會主義를 택하고 있는 점이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 물질이야 정신이야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 東學思想에서는 宇宙의 本質을 至氣로 보는데 이 지기는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기 이전의 우주의 본체이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기 이전의 지기의 세계로 환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체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좋으냐는 것도 오랫동안 숙제이지만 東學에서는 民族主義를 가지고 두 가지 체제를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人間의 本質이 본래 화합적이냐 또는 투쟁적이냐는 문제도 오랫동안 논란되었지만 동학의 侍天主 즉 人乃天의 논리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侍天主 思想은 天人이 합일되어 공존하는 사상인데 이 공존사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인간과 우주가 모두 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협동하고 공존한다는 폭넓은 긍정적 사상이다. 자기와 자기 아닌 사람은 대립적 모순적 존재로서 결코 공존할 수 없어 부정을 통해서만 발전된다는 서양의 辨證法 思想은 생존경쟁에 있어서 우승열패의 현상을 합리화시키고 국제

219) 김지하(1991),「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동광출판사, p.49. 배영기(2000), "동학이념과 21세기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정립", 「동학연구 제 7집」, p.134에서 재인용.

사회에 있어서 강국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시켰다. 그 뿐 아니라 부정의 변증법은 모든 것을 분열 쪽으로 몰아가서 모든 현상을 상호반대적인 것으로 규정지어 배타적인 행동을 조장했다. 오늘날 북한 에서 유물변증법에 의한 투쟁의 강조와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이 옳고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고 유일사상을 고집하고 있는데 東學의 侍天主 思想에 의한 긍정적 사고를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侍天主 思想에 의하면 인간성은 본래 천성을 가지고 있어 선한 것이며 협동적이며 평화적이다. 그것이 가혹한 생존경쟁에 시달려 人性이 악화되고 상호경쟁과 투쟁이 성행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지만 인간성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곧 天主가 된다. 남북한도 이와 같이 인간성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윤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남한과 공동체 윤리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북한은 특수와 보편의 조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個人과 共同體의 調和를 이루어 각각의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승적 융화에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調和의 원리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民族主義로 나아갈 때 민족분단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요인은 저절로 해소되며 나아가 진정한 民族發展을 이루고 동시에 인류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220] 새로운 後天 開闢時代의 '신후기 세계이념'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어느 정도의 평등분배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 자유사상, 세계화 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輔國安民, 廣濟蒼生이라는 큰 이념의 그릇에 삶의 질, 공생, 한 산림, 한 얼, 어울림 등의 삶의 양식을 담아서 天人合一 정신에 입각해서 南北合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221] 統一은 민족이 주체가 되는 自主的 統一이어야 하며, 통일의 과정은 무력대결이 아닌 平和的 統一이어야 하며, 통일의 목적은 가장 이상적 국가형태인 民主福祉國家의 實現이어야 한다. 즉, 통일은 민족이 주체가 되어 평화적 방법으로 민주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金智河는

> 통일에는 통일의 사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을 창조적 통일로, 이상사회 실현의 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철학이 밑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222]

220) 한동운(1994), "동학사상의 이데올로기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75.

221) 신용하(1993), 전게논문집, p.48

하면서 이것을 水雲과 海月의 사상인 생명의 세계관과 생명의 운동에 의한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회복으로서 開闢을 통한 새로운 문명창조에서 찾자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통일의 기본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무궁히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사상이 東學思想이다. 統一의 이념적 좌표를 민족전통사상인 東學思想에서 찾아볼 수 있다. 東學思想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포용성과 순환원리를 통해 양극의 모순을 극복할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철학관 우주관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대립을 융화할 차원 높은 이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東學思想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요소를 포함하며, 서로 무리 없이 보완, 조화되어 궁극의 진리인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다. 東學思想에는 自由主義的 要素, 社會主義的 要素, 民主主義的 要素, 民族主義的 要素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 東學思想은 철학적 우주관이 자체적으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통일원리를 가지고 있다. 초월적 일신의 개념과 내재적 범신의 개념을 동시에 극복한 人乃天 思想은 보편과 특수의 통일사상을 이루었으며 理·氣二元論 또는 유물·유심 양론의 대립 모순을 지양하여 상호 생성작용의 원리로 융합하는 고차원의 통일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同歸一體思想은 지기의 무한한 자연순환 에너지인 氣化를 통하여 결국은 모든 대립갈등을 자연적으로 해소하여 돌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開闢思想은 과거의 모순과 폐습을 타파하여 명실 공히 새 세상이 된다는 뜻으로 그것은 또한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민족분단의 모순과 불합리를 극복하는 이상적 통일 민족국가의 실현을 민족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사상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순환생성 되어 무궁 무궁한 최고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東學思想은 민족분단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다함께 추구해야 할 지고지순의 統一原理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223] 民族主義 敎育思想이 현대교육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東學의 民族主義 敎育思想은 학생들에게 확실한 민족관,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데 現代的 意義가 있다. 동학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에 나타났듯이 외래 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이 아닌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한국적인 것으로 잘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東學의 民族主義 敎育思想을 적용하여, 민족통일교육, 주인의식, 국가사랑 하는 애국심을 길러주는 교육을

222) 김지하(1995),「새로운 삶의 길-생명과 운동」, 솔문화사. p.27.

223) 한동운(1994), 전게논문, p.75-77.

지속적으로 시켜나가야 하겠다. 본래 民族主義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자아 분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漢民族과 별개의 민족임을 자각하였을 때 이것은 이미 중국이 민족운동의 저항목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민족이 중국의 종주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가 정치적·사상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역사적 과제가 동학사상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결국 韓民族이 오랜 역사를 통하여 中國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혜택과 영향을 받아 왔으면서도 그들의 支配하에서 신음하는 동안에 민족주의 의식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정부 측이 淸 이외의 나라를 배척하였음에 비하여 동학의 排淸思想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東學의 민족주의의 성격을 평가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224]

둘째, 동학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은 바로 우리의 생존과 번영, 통일을 도모하는 主體的敎育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東學은 輔國安民을 포덕보다도 먼저 내세울 만큼 민족 주체적이다. 민족 주체적이고 輔國安民이 되지 못하는 교육은 결국 그 민족을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체험을 하였다. 사대 모화적이고 불평등한 교육관을 지니고 있었던 근대 조선시대에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근대화를 하지 못하고 국권을 강탈당했다. 이는 외부의 요인보다는 주체성이 결여된 인간들이 교육으로 길러져 이들이 지도층이 됨으로서 스스로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 日本에게 국권을 빼앗겼다는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의 민족역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거시적으로 보면 민족에 대한 부평초 같은 의미 이상이 없으며,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는 기회주의자들이다. 결국 자기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民族主義 敎育에서 가장 중시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피히테에 의하여 형성된 獨逸 민족의 주체성 함양이 몇 십 년 뒤 獨逸의 統一로 이어진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25] 따라서 민족통일과 미래의 민족교육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民族主體的이고 輔國安民的인 교육관에 입각한 교육이 시행되어 후손에게 좋은 業報를 남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결코 국수주의적이거나 배타적인 민족주체성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24) 노무지(1990), “동학의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66.

225) 정범모(1990),「미래의 선택」, 도서출판 나남. p.99.

民族主體性이나 輔國安民도 결국 민족의 뿌리와 저변을 굳건히 하여 외래의 우수한 사상이나 문화, 과학, 기술 등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바탕을 다지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가지 외래의 우수한 사상이나 문화가 우리에게 유입이 되면 우리가 그것들의 노예화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근본에 대한 敎育이 굳건하지 못하고 主體性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불식할 수 있는 교육관이 東學의 民族敎育觀이라 하겠다. 이것에 의해 교육되어진 결과는 民族의 統一에 이어 민족이 번영을 도모하고자 할 때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통일의 사상으로서 東學은 民族敎育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226] 東學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토대로 우리 민족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① 무분별한 서구 풍조의 수용이 아닌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민족주의 교육의 전개가 요구된다. ② 남북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대승적 승화로 나갈 수 있는 民族統一理念을 수립해야 한다. ③ 통일은 우리 민족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면서 국제적 성격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미국 등 주변국의 배타적 의식의 고취보다는 지지와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의 육성이 필요하다. ④ 民族主義敎育은 민족적 긍지에 기반을 두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민족주의 교육이 수행되어 민족성원의 내재적 에너지가 응집될 때 韓國 民族主義의 최대 과제인 민족통합도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227] 따라서 民族主義 敎育思想은 남북한 분단된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상이다. 과거 역사를 되 돌이켜 보아도 民族主義 의식이 미 함양되었던 민족은 결국 도태되고 다른 국가의 속국, 식민지가 된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民族主義는 극단적 국수주의로 변하며, 광신적, 맹신적인 민족주의로 바뀌어 다른 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 민족을 구성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民族主義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동학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도입하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민족에 필요한 민족주의 교육은 한민족 스스로 힘을 기르는 자립심, 독립심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며 한민족 스스로의 主體的, 自主的인 통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외세 의존적인 통일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힘, 自生力, 獨立心으로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 스스로 힘을 길러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지금의 현 한국

226) 이헌동(1993), 전게논문, pp.120-121.

227) 한동운(1994), 전게논문, p.74.

의 상황은 美國에 政治, 軍事的인 從屬關係, 中國에 경제적으로 지나친 의존적인 무역 등을 보이고 있는 데 결국은 강대국에 편승한 일방적 국가관계는 韓國의 主體的, 自主的인 국익을 주장하지 못해 종속적, 복종적인 국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국인 스스로 실력과 힘을 기르는 자주, 자강의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Ⅴ. 要約 및 結論

東學은 19세기 후반에 창도되어 실의와 방황과 좌절과 혼미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민중에게 용기를 주며 그 진로를 제시해 주었다. 東學은 가난한 민중과 호흡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위협받고 있을 때 토착적이며 한국적인 것을 민중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었다. 당시 조선조 말엽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모순과 외세침략의 위협감에서 민중들은 소외당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감에 떨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아울러 기존의 유교·불교·도교·민간신앙이 사상적으로 무질서하게 얽혀져 여러 가지 미신이 횝쓸고 있을 때 東學은 이러한 혼미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등단했던 것이다. 민중 속에서 발생한 民族主義 意識은 위정자들의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계기로 하여 비롯되었다. 水雲이 민중을 교육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과 사회, 국가와 민족에 이르는 전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敎育思想은 東學思想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侍天主, 輔國安民 에서 나타나고 있다. 侍天主는 人間 中心의 교육 가치관으로써 이 속에서 그의 교육적 인간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상적인 인간상은 君子 또는 地上神仙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인간은 하느님의 덕과 합치되는 合基德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君子가 되기 위한 그의 교육적 방법은 守心正氣 인데, 이 수심정기는 誠·敬·信이라는 실천이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깨달음의 원리다. 인간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人間尊重의 原理를 방법으로 내세웠다. 侍天主가 인간 개개인에 대해 교육을 하려 했던 교육사상의 표현이었다면 輔國安民과 開闢은 국가적이요, 사회적인 교육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水雲은 개인적 인격완성에 못지않게 사회적 인격완성을 중요시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는 인간 완성을 통해서 사회 개조 내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東學은 그 자체가 지닌 종교적 성격에 있어서 儒·佛·仙을 비롯해서 이들을 잘 융합하고 또 고유한 민간신앙을 소화시켰고 당시 서학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민간신앙에 뿌리를 박고 있는 전통적 민족사상에서 싹터서 우리의 민중 속에 토착화되어 우리민족의 참된 삶의 현실에 입각한 공통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우리의 근대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위와 같이 東學의 敎育思想을 고찰하여본 결과

① 東學을 보다 구체적인 敎育思想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② 東學의 교육정신의 본질에서 교육사상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최고이념은 모든 사람의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고 최대한 실현시키는 일이다. 學校敎育의 철학적 근거 역시도 人間尊重의 사상을 교육에 있어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인간존중을 민주교육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서구사상의 장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東學의 人乃天에서 人本主義 敎育思想을 찾을 수 있고 平等主義 敎育思想과 女性尊重, 兒童尊重 敎育思想, 道德主義 敎育思想으로 유출해 낼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이념적 측면에서 이해되는 역사적 의의에서 상실된 자아를 지각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민족적 주체성을 겸비한 근대적 인간 육성을 근본이념으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③ 애국애족하는 시민정신과 인간교육정신이 시급히 요청되는 한국교육현실에서 볼 때, 주체적이고 인도적인 民族主義 敎育思想을 활용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東學의 敎育思想에 대한 이상과 같은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본 논문의 Ⅱ장의 東學의 人間觀인 侍天主의 기본사상과 Ⅲ장의 東學의 교육사상에 관한 고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東學의 敎育思想속에서 내포된 것은 한국교육의 현대화와 정상화에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승화시키고 구현시켜야 할 요소들로서 東學敎育思想의 現代的 意義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人本主義 敎育思想이다. 東學의 人本主義 敎育思想은 우리나라 본래의 전통적인 단군사상인 홍익인간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사상으로서 서양의 民主主義 이념과도 부합된다.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侍天主, 人乃天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모두

가 평등하게 사는 것이 최상의 국가요, 사회라는 이치를 내세운 서구 民主主義도 남녀차별이 최근까지 엄존해 온 것에 비할 때 東學의 人間尊重 思想은 가장 평등하고 귀하게 하는 사상이다. 東學이 인간 존중 사상은 인간에게 교육의 제 일차적인 목적은 인격교육, 인간성 회복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당한 민중들에게 그 모순을 헤쳐 나오게 해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초월하여 소외현상에 대항하는 비판적 민중으로 교화시켰던 것이다. 이 같은 人間尊重 敎育思想은 한국인의 인간주의적 성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人間中心 思想이 그 근간이 되었다 하겠다. 이 人本主義 敎育思想의 현대 교육적 의의를 교육현장에 적용시킨다면 학생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 교사와 학생사이에 서로 인격적인 존중, 사랑이 밑바탕이 된다면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학생과 교사 간에 마음에 벽을 무너뜨릴 것이며 인격 대 인격의 자연스런 만남으로 사제간의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平等主義 敎育思想이다. 모든 인간은 한울님을 모신 시천주의 주인으로서 빈부귀천, 신분의 고하, 남녀의 차별 없이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자는 사상으로 불평등한 정치·사회 속에서 인간을 평등을 주창함으로서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교육하도록 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侍天主 思想은 모든 사람이 각자 천주를 쉽게 내면화 할 수 있고 양반과 민중이 본질적으로도 차등이 인정되지 않는 만인 군자화의 인간평등사상으로 볼 수가 있다. 나아가 開闢思想은 평등한 세계인 地上天國을 건설한다는 혁명적 평등관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개인의 인격적인 존엄성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주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상하·주종의 지배·복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횡적인 평등관계를 가르쳐 줌으로써 근대적 사회관의 선구적 사상이었다. 이점에서 水雲의 東學思想은 신분적 차등에서 벗어나 근대적 평민의식의 대두를 약속해 준 것이었다. 平等主義 敎育思想이 시사하는 바는 모든 인간 천지만물을 소중하게 여겨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는 점은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海月의 三敬사상인, 敬天·敬物·敬人思想을 교육현장에 잘 적용시키면 하늘 땅, 인간을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敬物思想 즉 만물을 공경하라는 사상은 요즘 지구촌이 환경오염으로 매우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데, 일선 교육현장에서 잘 교과과정에 접목시켜나간다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女性尊重 敎育思想이다. 여자들도 교육을 통해 意識을 가져야 함을 강조

하여 三從之道와 七去之惡의 굴레에서 천대받았던 여성을 해방하여 남자와 똑같이 人乃天의 관점에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개하도록 한 교육사상이다. 內修道文을 통해 여성의 수도하는 법과 도의 사상을 나타내고 內則을 통해 胞胎時 유념사항 등과 항상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라고 교훈하였으며 부인의 수도는 우리 道의 근본이라 하여 女性尊重思想을 밝히고 있다. 水雲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부인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이를 통해 부부가 화합하면 가정이 화순해질 뿐만 아니라 부부가 일시에 '吾心卽汝心'이 되는 경지에 다다른다고 하여 夫和婦順의 교리를 가르쳤다. 東學은 侍天主 思想을 통하여 여성존중을 몸소 실천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여자들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여 근대적인 여성의식을 깨닫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전통이 되어 女性尊重 思想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부속품이나 천대시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의 인격체로 우대했다는 점에서 女性尊重의 敎育思想으로 현대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넷째, 兒童尊重 敎育思想이다. 水運은 人乃天 思想에 입각하여 아동은 다 같은 인간이며, 한울님과 같은 존재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나의 노리개나 하대 받아도 당연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아동을 치는 것은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라 하여 태아로부터 유아,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 아동을 한울님 모시듯이 侍天主 함으로서 존중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水雲은 신생아의 모습에서도 인간의 존귀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이 한울을 모신다는 것은 어머니가 태아를 모신다는 것과 같다 하였다. 이 말은 인간이 한울을 태아처럼 모신다는 뜻과 인간이 태아를 한울처럼 모신다는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 어른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지만 힘이 없는 존재이므로 존중되고, 바르게 키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東學의 兒童尊重思想은 현대 교육적 의의에서 동학이 어른들이 아동을 소중한 인격체로 여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라 한 사상을 요즘 교육현장에서 體罰禁止와 연계시켜 도입하면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강한 信賴感이 형성될 것이다.

다섯째, 道德主義 敎育思想이다. 東學은 인간은 人乃天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로서 이를 이루는 것이 守心正氣에 의한 誠·敬·信 즉 도덕성의 함양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도덕교육의 출발은 인간이 한울님과 같은 존

재로 인식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도덕교육의 본질에 합치할 수 있고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道德이란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해야 할 길이다. 그래서 유교의 논리만은 완전히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바른 도리를 이끌어 내는데 활용되고 있다. 道德歌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사람들은 모름지기 三綱五倫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하며 스스로 수양하여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 제약 즉 법으로 강제하는 타율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교화를 통해 도덕사회를 이루어 나가려는 높은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무질서와 인간의 심성타락을 경고하는 한편 인륜도덕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東學의 道德主義 敎育思想으로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면 도덕주의적 삶을 추구하여 守心正氣의 無爲二化로 마음을 바로 지키며 誠·敬·信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시 자신의 내면을 잘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삶으로 가능할 것이므로 誠·敬·信을 학교 교육현장에서 잘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民族主義 敎育思想이다. 내정의 부패와 외세의 침투로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입신출세보다는 輔國安民에 힘쓸 것을 강조한 사상은 민족부흥사상인 것이다. 이러한 東學의 대응은 매우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아래로부터의 창조적 대응이었으며 道成德立, 輔國安民, 布德天下하여 지상천국을 건설을 목표로 우리 민족에게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고 희망과 이상을 고취한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 東學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념으로서 主體性 確立과 統一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념으로서 현대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東學의 民族主義 敎育思想은 학생들에게 확실한 민족관, 국가관, 주체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데 현대적 의의가 있다. 교육현장에서 東學의 民族主義 敎育思想을 적용하여, 민족통일교육, 주인의식, 국가사랑 하는 애국심을 길러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東學의 敎育思想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에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東學의 敎育은 삶의 주체인 민중의 입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계획되고 전개되는 교육이다. 특히 제도화된 학교교육에서 교육의 주체가 누구이고, 누구에 의해서 교육이 전개되는 가를 생각해 볼 때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또한 學校敎育이 형식적, 제도화의 경향이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人間化 敎育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人間敎育이 인간을 궁극의 목적으로 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할 때 학교는 人間愛로서 일반소양을 쌓는 것 보다 人間의 價値를 尊重하는 主體的 敎育에 힘써야 하겠다.

② 모든 人間이 지닌 가능성, 주체성, 존엄성을 성·경·신을 통하여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자각과 각성, 민족주체의 자각을 이루고 결국은 同歸一體의 이상사회를 실현함에 그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대 교육은 위로부터 일방적인 교육통일과정으로 참다운 교육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때에 東學의 교육은 民族主體的, 人間化敎育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인간화의 이념은 인간적 가치가 교육이념 체계의 정상을 차지해야 하며 인간적 주체성을 위한 교육은 인간교육의 본질적 핵심이라는 각도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東學의 敎育思想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東學의 교육은 삶의 주체인 민중의 입장에서 그들과 더불어 계획되고 전개되는 교육이다. 현대 학교교육이 주체가 불분명하고 제도화, 형식화의 경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대해 人間化敎育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東學의 敎育思想은 모든 인간이 지닌 가능성, 주체성, 존엄성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자각과 각성, 민족적인 자각을 이루고 나아가 이상사회를 실현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東學은 한국의 현대교육이 참다운 교육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때에 民族, 民主, 人間化 敎育의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자료>

經典
高宗實錄
道德經
東經大全
龍潭遺嗣
神師法說
聖師法說
韓國學報
海月先生法說註解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단행본>

권이종(2000), 「청소년교육개론」, 한국교원대학교.
강수원(1984)외 6인, 「한국의 종교」, 태학당.
강돈구(1992), 「한국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강재언(1983), 「근대한국사상사 연구」, 한울.
김경식(1988), 「교육학개론신강」, 교육과학사.
김정환(1984), 「교육학개론」, 박영사.
김지하(1995), 「새로운 삶의 길-생명과 운동」, 솔출판사.
김철준(1979), 「국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대학교재편찬위원회(1993), 「산업사회와 사상」, 민석문화사.
박용옥(1975), 「한국근대여성사」, 정음사.
손인수(1992), 「한국교육사」, 문음사.
신복룡(1980),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평민사.

오문환(1996), 「사람이 하늘이다」, 솔출판사.
유병덕(1986), 「한국의 신흥종교」, 시인사.
윤노빈(1989), 「동학의 세계사상적 의미, 사상과 혁명」, 청아출판사.
이기백(1979), 「한국사신론」, 일조각.
이돈화(1933), 「천도교 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이돈희(1992), 「교육철학개론」, 교육과학사.
이상백(1965), 「한국사 근세 후기편」, 을유문화사.
이현희(1978), 「한국 근대 여성 개발사」, 이우출판사,
_____(1981), 「동학사상의 배경과 그 의식의 성장」, 경인문화사.
_____(1986), 「동학혁명과 민주」, 대광서림.
_____(1994), 「동학 혁명사론」, 대광서림.
윤이흠(1990), 「한사상과 민족종교」, 일지사.
정범모(1990), 「미래의 선택」, 도서출판 나남.
정우현(1990), 「교육사회학 연구」, 교육과학사.
장을병(1977), 「한국 정치론」, 범우사.
조기주(1979), 「동학의 원류」, 보성사.
한국교육연구소(1993)편, 「한국 교육사」, 풀빛.
한우근(1983),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홍창화(1991), 「천도교 교리와 사상」, 천도교중앙총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학위논문>

강정일(2001),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교육기회 평등분석”,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점권(1997), “동학의 아동존중사상과 교육”,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영미(1996), “동학의 교육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우태(1984), “한국 민족주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현옥(1983), “동학의 여성 개화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남욱현(1995), “동학사상의 윤리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노무지(1990), “동학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손정호(2001), “동학의 교육관과 그 현대적 의미”,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송준석(1993), “동학의 평등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형진(1998), “동학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 교육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양원철(2000), “동학사상의 윤리적 실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강일(1992),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이영종(1993), “동학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용희(1991),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응렬(2000), “동학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종우(1995), “동학의 인간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이하재(1992), “동학의 인본주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헌동(1993), “동학의 교육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장대희(1983), “동학의 민중교육과 동학사상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장원배(2002), “동학의 교육사상 고찰,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정기춘(2003), “동학의 민주주의적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미라(1992), “동학에 나타난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정순남(1998), “동학의 한울님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정영엽(2001), “최시형의 생애와 여성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창하(1979), “동학사상 및 동학혁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최무석(1988), “동학의 도덕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최지희(1992), “수운 최제우의 여성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팽필원(1995), “동학윤리사상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동운(1994), “동학사상의 이데올로기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허 정(1987), “동학의 교육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권경애(1998), “동학사상의 근대적 여성관에 관한 연구”, 「상명사학 제6집」.
김용덕(1965), “동학사상의 연구”, 「중앙대 논문9집」.
김 구(1969), “白凡逸志”,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김용준(2002), “동학인간관”, 「동학혁명백주년기념논총」, http://www.chondogyo.or.kr
김재우(1986), “동학에 있어서의 교육가치적 측면에 관한 고찰”, 「동양공전 논문집 제8집」.
남만성(1981), “최제우의 동경대전”, 「을유문고 Ⅲ」, 을유문화사.
노태구(1992), “평화통일을 위한 정치 이념적 모색”, 「동학사상 연구자료 9」, 열린문화사.
도광순(1981), “한국의 전통적 교육 가치관”, 「현대와 종교 4집」.
박경환(2003), “동학과 유학사상”, 「동학학회」.
박용옥(1981), “동학의 남녀평등사상”, 「역사학보 91」.
박종홍(1959), “한국사상 연구의 구상”, 「한국사상 제1·2합집」, 고구려문화사.
배영기(2000), “동학이념과 21세기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 정립”, 「동학연구 제7집」.
손인수(1990), ‘한국교육 사상가 평전”, 「제Ⅱ집, 제Ⅳ집」, 문음사.
_____(2002), “東學의 교육관”, http//www.donghakinfo.co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_____(1988), “동학의 인간관과 교육관”, 「신인간 제464집」.
신용하(1990), “동학사상의 역사적 성격”, 「신인간 제12월호」.
_____(1995), “동학사상의 휴머니즘과 민주주의”,「한국사상 22」.
신일철(1974), “최수운의 역사의식”,「최수운 연구」,한국사상연구회.
_____(1980), “최수운의 역사의식”,「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이원호(1983), “동학의 인간관과 현대 교육적 의미”, 「신인간 10월호」.
_____(1992), “한국교육사상의 좌표와 전망”, 「교육사상연구 제1집」.
이항녕(1989), “통일이론과 동학사상”, 「신인간 11호」.
임현구(2000), “최제우의 보국안민 사상”, 「동학연구 제7집」.
최동희(1976), “천도교사상”, 「한국문화사상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편.
_____(1982), “동학사상과 동학운동”, 성균관대출판부.
최홍규(1996), “동학의 민족주의와 역사의식”, 「경기대 민족문제 연구 제3집」.
한국교육학회교육사연구회(1987), 「교육사상가 평전1」, 교학연구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Education thought of Donghak and modern sense

Gong Yong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eok-Ji

Donghak(Easten Learning) is instructive to Korean who live today in terms of starting to enforce cultivation of strong national identity which can implant comfort and order to despaired peoples by politics, morality and corruption of education. Also, subject education, patriotism education and genuine democracy education in inconvenient education spot are available. Their philosophical suggestion point also is not little. From that point of view research has the purposes as follows. First is to solidify basis that can approach Donghak to more specific education thought. Second is doing to confirm excellency of Korean education thought reviewing essence of education spirit. Third, do to be main volume at real of Korean education that patriotism citizenhood and human education mind which know are required urgently. It looked into way that can be applied to modern educational sense because humane thought is sublimated from modern education thought. As this research is thing to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Education in august, 2004.

investigate education ideology of Donghak through basis thought of Sichunju of Donghak, it adopt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Used data used DongyungDaeJon and Yongdamyusa that is basis scripture of Donghak and data that come out in Chondoism. And utilized other treatise or book to data. Composition of paper that see investigate modern sense of Donghak education thought which emphasize human's dignity and equality and national identity is as following.

The chapter Ⅰ it establishes purpose of research and presents method of research and the limit as what it is that reason that Donghak should be studied in education situation.

The chapter Ⅱ it looks to background that advocate Donghak. And it sees over Sichunju, as the central point, human view of Donghak.

The chapter Ⅲ as education thought which is connoted in Donghak through theoretical basis that is drawn in education view of Donghak, education thought of humanism, equalitarianism, woman respect, child respect, moralism and nationalism it is looked into.

The chapter Ⅳ it is examined modern sense of Donghak through education thought of Donghak by education method of Donghak.

The chapter Ⅴ it is discussed suggestion point that give result and education that investigate education thought of Donghak through whole summary to conclusion part of treatise that see in 4th chapter sense and modern education thought. Basis thought of Donghak which investigates through this research can compress that is human's dignity and national identity. That is, it insisted that it must become country's all targets that serve human's happiness and change individual, country and society as if to live in a manner of human. In this aspect, usually Donghak thought sees human as ultimate purpose. it combined of personal subjecthood establishment and ethnic subjecthood of Bogukanmin that awake forfeit self by the best value seek in terms of education thought sense had.

If present education thought of Donghak and modern educational sense that appear through consideration of Donghak's thought, they are as

follows.

First, it is humanism education thought. Humanism education thought of Donghak 'Do human as is profitable widely.' of devotion to the welfare of mankind that is our country original traditional Tangun historically ideology and vein mutual understanding do as though which know with European democracy ideology coincide. Humanism thought of Donghak is hinting that several primary purpose of education is important character building, education of human nature recovery to human. It was educated to politics, society and critical public at those days which depersonalize own discharging digging up the inconsistency to peoples which was shunned economically and transcend and opposes in estrangement present state. Human center thought which such humanism education thought show cases most Korean's inclination of humanism got into the recent publication. This humanism education thought in modern educational sense, if apply in education spot, is going to pull down wall in spirit between student affairs section teacher getting into nature which can practice truth education if each other personal respect, love becomes groundwork between teacher and a student thinking a student most invaluably and true educa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may consist by natural meeting of personality to personality.

Second, it is equalitarianism education thought. By poverty and wealth, high and low, up and down of social position, it is thought that treat human impartially without man and woman's distinction as boss of Sichunju who all humans accompany God. It that do to educate all humans without distinction as that advocate human's equality in unequal politic society is historically. Point that must think seriously and treat without distinction all human all creatures to modern sense of equalitarianism education thought is very suggestive in modern education.

Third, it is woman respect education thought. Because release woman who was neglected absurd customs for lady and headstall of seven grounds for divorce, it also emphasizied that women must have awareness

through education and respect woman as personal in vantage point of Innaechun equally with man, it is education that do to unfold of new life to them. Donghak showed woman respect through 'thought of Sichunju' practically and made women realize modernistic woman's way emphasizing that must have consciousness through education. These education contents became tradition and emphasize woman respect thought. And woman take away accessories or that neglect and there is modern sense from education thought of woman respect in terms of treated by single personality.

Fourth, it is child respect education thought. Because Soo woon is based in thought of Innaechun, child is same human all, did that should be respected because it is existence such as God. That hit child realized by rightful existence even if is treated with disrespect single toy respects as Sichunju as accompany God that do child treating infant, child in become independent personality style from older person because do that attack a hedge soon and it is that must educate thought. Modern educational sense of child respect thought can assume that there is meaning in terms of Donghak offered opportunity that older persons can think child as important personality style. That strike child did that attack God. While this thought respects each other between teacher and a student if introduce linking these day with prohibition of punishment in education spot, strong confidence may be formed.

Fifth, it is moralism education thought. In Donghak that human accomplishes this as dignified existence that can do Innaechun, is Sincerity, Respect and Belief by spirit and energy. It is possible when it is to foster of morality. If examines modern sense from moralism education thought of Donghak, keeping mind justly by spirit and energy by seeking moralistic life. It is possible to lead an ascetic if to keep growing sincerity, respect and belief and resect well own inside. It needs to apply well sincerity, respect and belief in school education field.

Sixth, it is nationalism education thought. Donghak thought which

emphasize to help to Bogukanmin than individual's profit or success in life in difficult situation that radical of the nation shakes by decomposition of unofficial decision and infiltration of external condition is that is nation reconstruction thought. Correspondence of these Donghak was creative correspondence from lower part that is very unique and is main volume. By doing Doseongdeokrip, Bogukanmin and Podeokcheonha it aimed for Ground Kingdom of Heaven construction. It is to solve actual subject to our nation by target and nationalism education thought of Donghak. It can find modern educational sense as unity ideology of our nation that intend subjecthood establishment and coordination in point called racial movement that inculcate hope and ideal. It is very great that education though of such Donghak suggests. Education of Donghak is education that is planed and is spread along with them in public's situation which is subject of life. Modern school education is presenting necessity of humanization education for subject is being ambiguous and do so that add more tendency of institutionalization and formalization. Education though of Donghak raises possibility that all humans have, subjecthood, and dignity. It accomplish personal self-consciousness and awakening, ethnic self-consciousness with this and there is essential sense to realize something wrong society going forward. Donghak is pitching nation, democracy, meaning of humanization education and subject at time that Korean modern education is not fulfilled genuine education.